

이 해 속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의 여가 및 체육활동
참여인식과 경향분석

대도시·중소도시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원 유 미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건전한 여가 및 체육활동 참여인식과 경향을 모색하고자 여가활동의 참여인식, 참여경향, 참여정도, 체육활동의 참여인식, 참여경향, 참여정도, 참여종목을 성별, 지역별, 전공별로 대도시(서울) 중·소도시(제천) 지역 중심 남녀 대학생 1000명을 단순 무선 표집방법으로 이용하여 유효자료 940부를 조사, 분석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PC+10.0의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이용한 교차분석 및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분석하였으며, 사후비교방법으로는 Duncan의 다중비교로 분석하였다.

1.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성별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여가활동중 시간제약과 소비비용 제약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여가 의미, 여가활동 참여 후 만족인식,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중요도, 여가 중요도는 대도시가 중·소도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여가 의미, 여가활동 시간제약,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이 예·체능계가 자연계와 인문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여가활동 필요이유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스트레스 해소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많은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여가활동을 즐긴다는 것은 신체적 및 사회적, 정신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평일에 참여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친구와의 만남이 가장 높고 평일에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레저스포츠 활동으로 나타났다.

4. 대학교 주변의 여가시설 중에서 보완·신설되기를 희망하는 시설로는 성별로 구별하면 남자는 스포츠센터를 여자는 문화센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별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모두 스포츠센터를 신설·보완하여야 한다고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자연계와 인문계가 문화센터로 예체능계는 스포츠센터로 신설·보완하여야 하는 장소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과 연계된 점은 학교주변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졌다.

5.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동반자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동성친구와 여가활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장애요인으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비용부족이 높게 나타났다.

7.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성별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비용(평일)이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 전공별 비교에서는 시간(주말)이 자연계가 인문계, 예체능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8.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성별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체육활동 의미와 필요성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체육활동의 필요성, 정서적, 사회적 필요성으로 대도시가 중소도시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체육활동 의미,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필요성이 예체능계가 자연계, 인문계보다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체육활동이 필요한 이유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건강관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건강을 목적으로 여가활동과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체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10. 대학생들의 체육활동 동반자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동성친구와 여가활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대학생들의 체육활동 장소를 성별로 구별하면 남자는 체육공원, 여자는 집 주변 공터로 나타났고, 이 결과로 남자들은 여러 시설이나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체육공원에서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여자들은 집 주변의 공터에서 가벼운 운동을 실시한다고 생각된다. 지역별로 구별하면 대도시는 스포츠센터, 중·소도시는 집 주변 공터로 나타났고, 이 결과로 대도시는 중·소도시에 비하여 체육시설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도시에 체육시설이 신설·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성별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으로는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으로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 평일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이 예·체능계가 자연계와 인문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13. 체육활동 참여종목에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에서 수영과 테니스가 체육활동 참여종목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대학생들은 체육종목에서 수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 결과로 유산소성 운동으로 호흡 계와 순환계를 발달시켜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다고 생각된다.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활동으로 대학생의 욕구 충족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가설	3
4. 연구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여가 개념 및 정의	5
1) 여가 개념	5
2) 여가 정의	6
(1) 시간적 정의	7
(2) 활동적 정의	7
(3) 상태적 정의	8
(4) 제도적 정의	8
(5) 통합적 정의	8
2. 여가에서 체육의 의미	9
3.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태도	10
1) 여가 참여 유형	10
2) 여가태도	10
4. 선행연구	12

II. 연구방법	13
1. 연구대상	13
2. 연구일정	13
3. 연구절차	14
4. 측정도구	15
5. 자료처리	16
V. 연구결과	17
1. 여가활동 참여인식, 참여경향 및 참여정도 분석	17
1)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관한 분석	17
(1)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인식 분석	17
(2) 지역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인식 분석	19
(3) 전공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인식 분석	21
2) 여가활동 참여경향에 관한 분석	23
(1) 여가활동의 필요이유	23
(2) 평일에 참여하는 여가활동	25
(3) 평일에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	27
(4) 보완·신설 되어야 하는 여가활동	29
(5) 여가활동의 동반자	32
(6) 여가활동의 장애요인	33
3)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관한 분석	35
(1)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정도 분석	36
(2) 지역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정도 분석	38
(3) 전공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정도 분석	40
2. 체육활동 참여인식, 참여경향, 참여정도, 참여종목 분석	42
1)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관한 분석	42

(1)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인식 분석	42
(2) 지역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인식 분석	44
(3) 전공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인식 분석	46
2) 체육활동 참여경향에 관한 분석	48
(1) 체육활동 필요이유	48
(2) 체육활동 동반자	50
(3) 체육활동 장소	52
3)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관한 분석	54
(1)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정도 분석	55
(2) 지역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정도 분석	57
(3) 전공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정도 분석	59
4) 체육활동 참여종목에 관한 분석	61
(1) 성별, 지역별, 전공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정도 분석	62
 V. 논 의	 64
VI. 결 론	70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설문지 구성	15
<표 2>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성별 간 기술통계량	17
<표 3>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성별 간 분산분석	18
<표 4>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지역별 기술통계량	19
<표 5>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지역별 분산분석	20
<표 6>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기술통계량	21
<표 7>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분산분석	22
<표 7-1>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차이	23
<표 8> 여가활동 필요이유에 대한 빈도분석	24
<표 9> 평일에 참여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빈도분석	26
<표 10> 평일에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에 대한 빈도분석	28
<표 11> 보완·신설되어야 하는 여가활동 시설	30
<표 12> 여가활동의 동반자	32
<표 13> 여가활동의 장애요인	34
<표 14>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성별 간 기술통계량	36
<표 15>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성별 간 분산분석	37
<표 16>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지역별 기술통계량	38
<표 17>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지역별 분산분석	39
<표 18>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기술통계량	40
<표 19>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분산분석	41
<표 19-1>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차이	42
<표 20>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성별 간 기술통계량	43
<표 21>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성별 간 분산분석	43
<표 22>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지역별 기술 통계량	44

<표 23>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지역별 분산분석	45
<표 24>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기술통계량	46
<표 25>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분산분석	47
<표 25-1>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차이	48
<표 26> 체육활동 필요이유	49
<표 27> 체육활동의 동반자	51
<표 28> 체육활동 장소	53
<표 29>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성별 간 기술통계량	55
<표 30>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성별 간 분산분석	56
<표 31>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지역별 기술통계량	57
<표 32>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지역별 분산분석	58
<표 33>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기술통계량	59
<표 34>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분산분석	60
<표 34-1>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차이	61
<표 35> 체육활동 참여 종목	62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절차 14

I. 서론

1. 연구 필요성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강을 지키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 것처럼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체육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신체적 발달, 사회적 대인관계 개선을 통해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체육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체육활동의 참여는 증대되는 여가를 보다 건전하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고, 현대의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게 한다.

체육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사회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현대인의 생활전반에 걸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연령, 사회계층, 소득수준 등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경제적 특성과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체육활동에 참가하고 있다(임번장, 1994).

체육에 대한 태도는 체육 참가의 결과로서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태도 영역의 하나이며, 개인이 평생에 걸쳐 체육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체육 활동은 즐거움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활동 그 자체를 추구하는 활발한 신체활동인 동시에 참여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긍정적 측면이 보고되면서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정영린, 1997, 오주훈 2000).

일부 진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와 앞으로 있을 주 5일 수업제는 여가문화가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처방법에 대한 논의나 연구, 사회제도적인 준비 및 타당성이나 최적화를 위한 준비는 부족한 상태이다. 주 5일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가 아무리 좋은 여론을 얻는다고 해도 준비 없이 실시해선 득보다 실이 커질 수도 있다.

청소년 시절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제한과 단체 활동 중심적인 여가활동에서 탈피하여 대학생이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시간으로서 여가가 주어지면서 가장 활발하고 자발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는 사회인으로서 출발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라는 점에서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활동 향유와 그를 위한 여가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가활동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더라도 일률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생들에게 여가활동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 참여인식과 경향을 조사하고 관계성을 분석하여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2. 연구 목적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와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는 현대인에게 여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계획 또한 증대되면서 여가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오늘날의 여가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단순한 휴식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삶의 질적 향상, 자기표현, 자아실현, 자기개발 그리고 건강증진 및 행복추

구의 수단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임변장, 1995). 대학생의 여가생활 역시 소극적이고, 비활동적 여가형태에서 벗어나 자기개발과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가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 체육활동을 연계하는데 이는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현대사회의 각종 공해 환경 하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인의 각종 스트레스를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통하여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삶의 대한 의욕을 북돋아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매우 가치 있고 적극적인 여가형태로 인정받고 있다(임변장, 1991). 즉, 체육활동은 신체적 가치는 물론 정신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용한 여가활동으로서 개인의 생활양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정영린, 1997).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건전하고,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여가활동을 함양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생들의 여가·체육활동 현황을 조사하고, 상호관계성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여가·체육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 참여인식과 경향현황을 조사하고 관계성을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1.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여가 및 체육활동에 관한 인식은 현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시설차이로 인하여 여가 및 체육활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대학생의 전공에 따라 여가 및 체육활동 인식은 현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대도시 대학생(서울지역)과 중소도시 대학생(제천시역)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대상자의 표집이 전체 한국 대학생의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연구 대상 군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학생이기 때문에 연령에 관한 분류는 고려하지 않았다.

II. 이론적 배경

1. 여가 개념 및 정의

1) 여가 개념

여가의 용어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여가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Schole와 라틴어인 Licere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리스어인 스폴레는 여가, 학술토론이 열리는 장소란 뜻으로 오늘날에는 영어의 School 또는 Scholar란 뜻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김오중, 최장호, 1994).

또한, Schole는 조용함, 평화, 남는 시간(spare), 자유시간(free time) 등을 뜻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남다’와 ‘자유’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의무로부터 해당되어 아무런 구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김홍백, 2001).

라틴어인 Licere는 ‘허락하다’(to be permitted), ‘자유롭게 되다’(to be free)라는 뜻으로 직업과 직업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며, 자유시간(free time) 보다는 자유정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고, Licere는 여가를 뜻하는 영어 Leisure의 어원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대로마 사회에서 여가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Otium이 있다.

Anderson에 의하면 그리스인들의 라틴어인 Schole와 로마의 Otium은 그 자체가 그들의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들은 정치나 정치적 토론에 참가하고, 음악을 배워 연주하고, 스포츠 등의 육체적 기술을 연마하고, 지적인 대

화 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서태양, 차석빈, 1999).

그러므로 과거에는 여가를 객관적인 개념으로 보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한 이후에 남는 자유시간으로 노동시간과 생리적인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잔여시간으로 간주되기도 하고(Kraus, 1990), 이와는 달리 자유시간에 행해지는 일정한 형태의 활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가를 일, 가족, 사회참여, 창조적 능력의 자유로운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Dumazendire 1967).

Parker(1981)는 여가경험을 선택(choice), 융통성(flexibility), 자발(spontaneity) ,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의 4가지요소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고,

Neulinger(1981)는 여가를 정신(마음)의 상태로 보고 그 존재 자체가 강제로부터 자유인 동시에 인간존재의 핵심이 되며, 자신이 원하고 선택한 일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쾌적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여가에 해당되는 개념은 무료한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조용함, 자발적, 강제성과 의무가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한가한 시간을 뜻하기보다는 시간의 내용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Kraus, 1990; 서태양, 차석빈, 1996).

2) 여가 정의

여가는 하나의 행동 카테고리가 아니라 행동양식으로써 오늘날의 여가 현상은 노동, 가정생활, 문화 전체에 여러 형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의와 개념 역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가의 올바른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적, 활동적, 상태적, 제도적, 통합적으로 세분화하여 정의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서태양, 차석빈, 1996).

(1) 시간적 정의

여가를 자유시간, 비의무적인 시간, 자의로 선택한 시간 등으로 보는 견해이고, 실무적인 정의로서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가시간의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는 시간대 기록, 제도적 시간 파악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활동을 선택한 사람의 임의성, 특정 활동의 노동과의 관계 등에서 여가의 엄격한 구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여가의 성립은 활동 자체가 참가자의 자의에 의해서 선택되어야 하고, 노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여가시간에 노동이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노동시간에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노동과 관련이 있거나 활동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선택된 경우 이론적으로 보아 순수한 여가로 볼 수 없으며, 노동과 여가의 성격이 활동을 준여가(Semi-leisure)라고 한다(Dumazedier, 1967).

(2) 활동적 정의

여가를 ‘자유시간 중에 행하는 활동 그 자체’로 보는 견해로서 직장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일, 공동사회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는 활동 및 각종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모두 여가로 보고 있으며, 특히, 위락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Dumazedier(1967)는 여가의 근본기능을 휴식, 기분전환, 자기개발로 구분하고 여가를 시간적 바탕으로 한 활동으로 인식하려는 입장으로 개인이 노동, 가정, 사회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 휴식, 기분전환, 지식확대, 자발적 사회참여, 자유로운 창조력 발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행하는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의는 관찰 상의 용이점은 있으나 활동이 스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량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3) 상태적 정의

여가는 욕구와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상태 속에서 존재하며, 시간도 아니고 활동도 아닌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여가는 자체의 목적을 가진 어떤 활동에서 오는 심적인 변화를 여가시간의 한 구분으로 보지 않고 어떤 활동을 통한 심적 상태, 마음의 변화로 보고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개인의 심적 상태나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여 계량화하는 어려움이 있다.

(4) 제도적 정의

Kaplan(1975)은 여가란 경제적으로 자유시간의 영역에 속하며, 참가자에 의해 여가로 보아지고, 심리적으로는 유쾌하게 참여하고 회상하며, 잠재적으로는 모든 영역의 의무와 노력을 포괄하여 독특한 규범과 제약을 수반하며, 위락, 개인발전, 타인에 대한 기여를 지닌 자율적 활동경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Veblen(1967)은 여가란 사회의 한 계급을 대표하는 것으로 상류 사회계급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들의 여가란 비생산적 소비, 금권의 과시적 소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중화된 여가시대에 여가의 계급설이 일반적 이론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5) 통합적 정의

여가는 복잡하고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 측면으로는 여가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즉, 여가는 시간적·활동적·상태적·제도적 요소가 적절히 배합된 통합적인 속성을 갖는다. 여가란 개인이 노동이나 그 밖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휴식, 기분전환, 사회적 성취, 자기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수행하는 활동의 시간으로 정리할 수 있다(서태양, 차석빈, 1996).

결론적으로 여가는 '자유 시간에 휴식, 기분전환, 자가 개발, 사회적 성취 등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자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여가에서 체육의 의미

산업사회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로 인해 여가시간이 증가되어 왔으며, 생활의 질적 향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여가가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개인이 보다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즐기기 위한 요소로서 현대인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이후원, 1993).

학교체육이나 엘리트 체육과 달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을 일컬어 사회체육, 생활체육, 평생체육이라고 하며, 이러한 개념은 레저스포츠(leisure sports)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오근희, 2001).

여가에서 체육은 개인의 창조적인 여가선용 방법으로써 뿐만 아니라, 복지 국가 건설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보다 광범위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가에서 체육이란 여가시간의 올바른 선용을 위해 행하여지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한 가지로써 신체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건강 증진 및 행복 추구, 그리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회적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김경렬, 2002). 즉, 엘리트 스포츠나 대중스포츠가 아닌 여가형태의 스포츠나 생활체육을 레저스포츠라고 정의하고 있다(임재구, 임태성, 2000).

여가에서 체육의 접근방법으로는 과거에는 운동기능을 배우기 위하여 종목을 선택하였지만, 현대인들은 건강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종목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체육의 의미도 여가시간의 올바른 선용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통하여 개인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여가활동 유형이나 현황 면에서 대학 체육활동에 의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 여가 활동 참여유형과 태도

1) 여가 참여 유형

여가의 참여정도는 참여의 빈도, 기간, 강도를 의미하며 각 요인에 따라 참여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Mckechnie(1974)는 여가활동을 주로 손과 도구를 이용하는 조작적 활동, 재료를 이용하여 대상을 만드는 공작적 활동, 활동자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적활동, 일상주변에서 행할 수 있는 일상적 활동, 그리고 활발한 신체활동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Kaplan(1960)은 여가활동을 사교와 교제활동, 게임과 예술 활동, 정적 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Orthner(1976)는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개인 활동,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제한되어있고 주로 무생물을 이용하는 병행 활동,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결합 활동 등으로 분류하였다.

Lutzin과 Storey(1973)는 여가활동을 동기 및 그 표현 형태에 따라 신체적 활동, 동기가 대인간의 상호작용인 사교적 활동, 예술적 활동, 역사적 및 민족적 기초를 지닌 문화적 활동, 자연세계와의 접촉을 목적으로 한 옥외활동인 자연적 활동, 주된 동기 및 표현양식이 지적활동인 정신적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여가태도

Olson & Zanna(1993)에 의하면 태도는 경험에 의해 획득된 심적 준비상태로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인지적 요소는 태도 대상에

대하여 소지자가 갖고 있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또는 중성적인 상념과 지식 등을 말하며, 정의적 요소는 태도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좋고, 싫음의 평가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요소는 태도 대상과 관련된 호의적 또는 혐오적으로 취하는 의도 및 행동을 말한다(김경태, 1996).

Robinson(1969)의 연구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남녀의 여가활동은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성별 여가시간이 같을 지라도 여가의 본질과 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가를 연구하는데 있어 연령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전체 생애에 있어 여가의 사회화가 용이하지 않은 이유는 어린 시절의 학습 부재 및 부족에서 온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까지 수상스키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장년이나 중년시절 배울 가능성은 희박하다. 생활주기(Life cycle)에 있어서 배워야 할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 것이다(Brimn, 1966).

교육은 사회경제적 지위 중 직업과 소득의 영향력과 분리하기 쉬우나 개인의 여가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되며 직업과 소득 수준이 고려될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Murphy, 1981).

여가태도는 '여가와 관계되는 대상들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려 하는 특정의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여가자체 말고도 여가행동, 여가활동 참여자나 참여집단, 여가프로그램, 여가정책, 여가 참여 장소 등과 같은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다 하겠다(Christensen & Yoesting, 1973).

4. 선행연구

여가 및 체육활동에 관한 참여인식과 경향분석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변인 추출과 분석의 틀을 다루고자 한다.

강신태(2000)은 “중학생들의 여가 의식 및 여가활동 실태의 지역 차에 관한연구”에서 평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서 학교에서는 휴식 중에 친구와 잡담이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여가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김오중(1994)은 “대학생들의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의 연구에서 여가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도시와 지방 대학생들의 여가시간, 여가활동실태 여가활동에 대한 평가의 반응을 비교 분석했다.

문화체육부(1995)는 국민 여가 생활의 대책 방안으로 여가의 정의 및 의식, 형태규범의 확립과, 여가 일탈 화 방지 및 건전 여가대책, 여가 활동의 질적 향상 유도대책, 여가기회의 확산대책, 국민 여가 생활을 위한 전담기구의 신설, 여가 공간, 시설의 적정화 방안 등 여가백서라 할 만큼 매우 광범위 하고 훌륭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여가활동 참여는 참여자들의 여가 의식은 물론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여가의 선용과 행복의 원천을 재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여가 및 체육활동은 참여자들이 기능적으로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의 기본 가정을 두고 대학생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 참여인식과 경향을 분석하고, 성별, 지역별, 전공별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4년 6월 현재 대도시(서울), 중·소도시(제천)지역 중심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단순 무선 표집(Simple random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표집조사 대상자 약 1,000명으로 각 지역별 500명과 지역별 남녀 각각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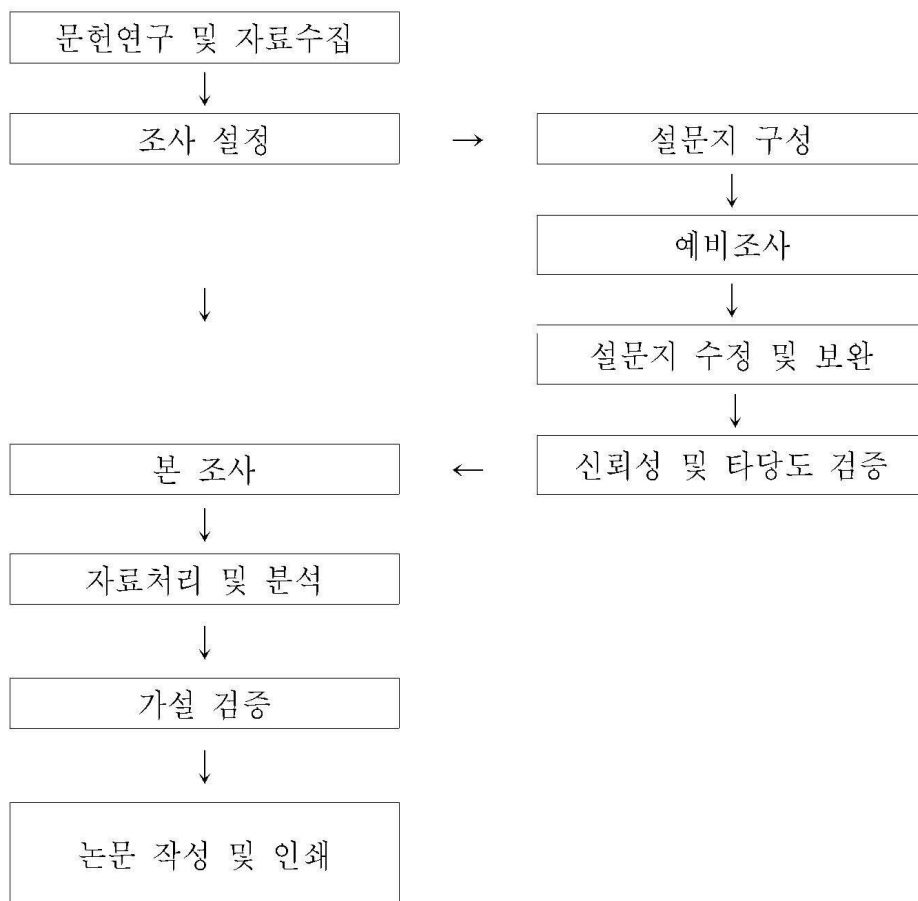
2. 연구일정

- 1) 계획 및 문헌 연구 : 2003. 10. ~ 2004. 06.
- 2) 선행연구 및 자료수집 : 2004. 01. ~ 2004. 03.
- 3) 연구대상자 선정 : 2004. 05. ~ 2004. 06.
- 4) 설문지 작성 및 예비조사 : 2004. 06. ~ 2004. 07.
- 5)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2004. 09. ~ 2004. 10.
- 6) 자료정리 및 통계처리 : 2004. 10. ~ 2004. 11.
- 7) 논문 작성 및 인쇄 : 2004. 12. ~

3. 연구절차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조사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거쳐 설문지를 수정, 제작하여 설문지는 대도시(서울)와 중소도시(제천)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질문은 자기 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조사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과정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절차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 절차

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 인식과 현황을 조사 분석하기 위해서 박미란(1993), 김호순, 한태용(2002)의 설문지를 보완·수정하여 본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레저 및 스포츠 사회학 관련 학자 등의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즉, 여가 및 체육에 관한 의식 문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거친 후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인정받았다. 신뢰도는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검정하기 위한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여가의식척도는 $\alpha=0.78$, 체육의식척도는 $\alpha=0.80$ 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본 설문지는 여가활동 22문항, 체육활동 22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설문지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구성

구 성 지 표	문항 내용	문 항 수
여 가 활 동	인식, 중요성, 만족, 필요성, 참여도 등	22
체 육 활 동	인식, 중요성, 만족, 필요성, 참여도 등	22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지역별, 전공별	3
계		47

5. 자료처리

대학생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 참여경향 분석 현황에 관한 설문자료를 회수한 결과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SPSS/PC+10.0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분석에 이용될 통계 방법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이용한 교차분석 및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비교방법 으로는 Duncan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가설검정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alpha=0.05$ 로 설정하였다.

IV. 연구결과

대학생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참여인식, 참여경향, 참여정도, 참여종목을 성별, 지역별, 전공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가활동 참여인식, 참여경향 및 참여정도 분석

1)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관한 분석

여가활동 참여인식은 여가 의미, 여가교육의 필요성, 여가활동 참여 후 만족인식, 여가활동 시간제약,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중요도, 여가 중요도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변인별로 성별, 지역별, 전공별로 비교를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인식 분석

<표 2>와 <표 3>은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분산 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2>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성별 간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성별	여가 의미	여가교육의 필요성	여가활동 참여 후 만족인식	여가활동 시간제약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중요도	여가 중요도
남	3.53(.83)	3.73(.97)	3.67(.88)	2.98(1.03)	3.09(.97)	4.25(.88)	3.83(.68)
여	3.48(.77)	3.76(.89)	3.69(.79)	3.28(1.00)	3.29(.83)	4.21(.84)	3.85(.62)
합계	3.50(.80)	3.74(.93)	3.68(.83)	3.13(1.03)	3.19(.91)	4.23(.86)	3.84(.65)

<표 3>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성별 간 분산분석

구성요인	변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p)
여가 의미	집단-간	.614	1	.614	.965	.326
	집단-내	596.385	938	.636		
	합계	596.999	939			
여가교육의 필요성	집단-간	4.626E-02	1	4.626E-02	.068	.794
	집단-내	634.774	938	.677		
	합계	634.820	939			
여가활동 참여 후 만족인식	집단-간	.116	1	.116	.167	.682
	집단-내	649.412	938	.692		
	합계	649.528	939			
여가활동 시간제약	집단-간	20.910	1	20.910	20.194	.000***
	집단-내	971.256	938	1.035		
	합계	992.166	939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	집단-간	9.674	1	9.674	11.899	.001**
	집단-내	762.620	938	.813		
	합계	772.294	939			
주 5일근무제에 따른 여가 중요도	집단-간	.354	1	.354	.482	.488
	집단-내	688.552	938	.734		
	합계	688.905	939			
여가 중요도	집단-간	7.110E-02	1	7.110E-02	.165	.685
	집단-내	403.752	938	.430		
	합계	403.823	939			

** p<.01, ***p<.001

<표 3>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성별 간 비교에서, 성별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여가활동 시간제약(F=20.194, p=0.000) 및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F=11.899, p=0.0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표 2> 여가활동 시간제약에 대한 인식은 남자 M=2.98, 여자 M=3.28,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에 대한 인식에서는 남자 M=3.09, 여자 M=3.29로서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지역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인식 분석

<표 4>와 <표 5>는 지역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분산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4>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지역별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지역	여가 의미	여가교육의 필요성	여가활동 참여 후 만족인식	여가활동 시간제약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중요도	여가 중요도
대도시	3.58(.76)	3.77(.91)	3.80(.77)	3.13(1.02)	3.20(.87)	4.33(.78)	3.93(.6103)
소도시	3.41(.83)	3.72(.95)	3.55(.88)	3.13(1.04)	3.18(.95)	4.11(.92)	3.73(.6905)
합계	3.50(.80)	3.74(.93)	3.68(.83)	3.13(1.03)	3.19(.91)	4.23(.86)	3.84(.6558)

<표 5>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지역별 분산분석

구성요인	변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p)
여가 의미	집단-간	7.184	1	7.184	11.425	.001**
	집단-내	589.815	938	.629		
	합계	596.999	939			
여가교육의 필요성	집단-간	.663	1	.663	.766	.382
	집단-내	812.060	938	.866		
	합계	812.723	939			
여가활동 참여 후 만족인식	집단-간	14.270	1	14.270	21.071	.000***
	집단-내	635.257	938	.677		
	합계	649.528	939			
여가활동 시간제약	집단-간	.02755	1	.002.755	.003	.959
	집단-내	992.163	938	1.058		
	합계	992.166	939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	집단-간	.03837	1	.003.837	.047	.829
	집단-내	772.255	938	.823		
	합계	772.294	939			
주 5일근무제에 따른 여가 중요도	집단-간	11.560	1	11.560	16.008	.000***
	집단-내	677.346	938	.722		
	합계	688.905	939			
여가 중요도	집단-간	9.357	1	9.357	22.250	.000***
	집단-내	394.466	938	.421		
	합계	403.823	939			

p<.01, *p<.001

<표 5>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지역별 비교에서, 지역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여가 의미(F=11.425, p=0.001), 여가활동 참여 후 만족인식(F=21.071, p=0.000), 주 5일근무제에 따른 여가중요도(F=16.008, P=0.000), 여가 중요도(F=22.250, p=0.000)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하여보면, <표 4> 여가 의미에 있어서는 대도시 M=3.58, 중·소도시 M=3.41, 여가활동 참여 후 만족인식에서는 대도시 M=3.80, 중·소도시 M=3.55, 주 5일근무제에 따른 여가 중요도는 대도시 M=4.33, 중·소도시 M=4.11, 여가 중요도는 대도시 M=3.93, 중·소도시 M=3.73으로, 네 요인 모두 대도시가 중·소도시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전공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인식 분석

<표 6>과 <표 7>는 전공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분산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6>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기술통계량
평균(표준편차)

전공	여가 의미	여가교육의 필요성	여가활동 참여 후 만족인식	여가활동 시간제약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중요도	여가 중요도
자연계	3.47(.79)	3.67(.94)	3.64(.80)	2.66(1.03)	2.67(.89)	4.21(.85)	3.8611(.6169)
인문계	3.39(.73)	3.71(.89)	3.66(.80)	2.89(.91)	2.72(.84)	4.30(.85)	3.8072(.6459)
예·체능계	3.58(.82)	3.83(.94)	3.73(.87)	3.07(1.03)	2.99(.92)	4.22(.87)	3.8447(.6957)
합계	3.50(.80)	3.73(.93)	3.68(.83)	2.87(1.03)	2.81(.91)	4.23(.86)	3.8447(.6558)

<표 7>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분산분석

구성요인	변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p)
여가 의미	집단-간	4.711	2	2.355	3.726	.024*
	집단-내	592.288	937	.632		
	합계	596.999	939			
여가교육의 필요성	집단-간	4.957	2	2.478	2.875	.057
	집단-내	807.766	937	.862		
	합계	812.723	939			
여가활동 참여 후 만족인식	집단-간	1.914	2	.957	1.384	.251
	집단-내	647.614	937	.691		
	합계		939			
여가활동 시간제약	집단-간	32.534	2	16.267	15.883	.000***
	집단-내	959.632	937	1.024		
	합계	992.166	939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	집단-간	21.664	2	10.832	13.521	.000***
	집단-내	750.630	937	.801		
	합계	772.294	939			
주 5일근무제에 따른 여가 중요도	집단-간	.840	2	.420	.572	.565
	집단-내	688.065	937	.734		
	합계		939			
여가 중요도	집단-간	.335	2	.167	.389	.678
	집단-내	403.489	937	.431		
	합계	403.823	939			

*p<.05, ***p<.001

<표 7>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비교에서, 전공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여가 의미(F=3.726, p=0.024), 여가활동 시간제약(F=15.883, p=0.000),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F=13.521, p=0.00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하여보면, <표 6> 여가 의미에서는 자연계 M=3.47, 인문계 M=3.39, 예·체능계는 M=3.58, 여가활동 시간제약에서는 자연계 M=2.66, 인문계 M=2.89, 예·체능계 M=3.07,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에서는 자연계 M=2.67, 인문계 M=2.72, 예·체능계 M=2.99로 세 요인 모두 예체능계가 자연계, 인문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1>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차이

전공	N	여가 의미			N	여가활동시간		N	여가활동소비	
		1	2	3		1	2		1	2
자연계	378	2.66			166	3.39		378	2.67	
인문계	166		2.89		378	3.47	3.47	166	2.72	
예·체능계	396			3.07	396		3.58	396		2.99
유의확률		1.000	1.000	1.000		0.200	0.137		0.516	1.000

Duncan의 방법으로 유의한 것에 대한 평균 검정 결과 평균크기는 자연계 < 인문계 < 예·체능계 순임을 알 수 있다,

2) 여가활동 참여경향에 관한 분석

(1) 여가활동의 필요이유

여가활동의 필요한 이유로는 스트레스 해소, 피로회복, 체육활동, 취미활동,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공부능률 향상으로 전체 요인을 구성하였으며, 각 변인별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8>은 여가활동 필요이유에 대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빈도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8> 여가활동 필요이유에 대한 빈도분석

			스트레스 해소	피로회복	체육활동	취미활동	일상으로 부터의 탈출	공부능력 향상	전체	
성별	남	N	191	45	35	173	9	10	463	
		%	41.3	9.7	7.6	37.4	1.9	2.2	100.0	
	여	N	208	46	12	187	8	16	477	
		%	43.6	9.6	2.5	39.2	1.7	3.4	100.0	
	전체		N	399	91	47	360	17	26	940
			%	42.4	9.7	5.0	38.3	1.8	2.8	100.0
지역	대도시	N	226	34	21	209	4	13	507	
		%	44.6	6.7	4.1	41.2	0.8	2.6	100.0	
	중·소도시	N	173	57	26	151	13	13	433	
		%	40.0	13.2	6.0	34.9	3.0	3.0	100.0	
	전체		N	399	91	47	360	17	26	940
			%	42.4	9.7	5.0	38.3	1.8	2.8	100.0
전공	자연계	N	165	31	6	155	12	9	378	
		%	43.7	8.2	1.6	40.1	3.2	2.4	100.0	
	인문계	N	70	23	5	63	3	2	166	
		%	42.2	13.9	3.0	38.0	1.8	1.2	100.0	
	예·체능	N	164	37	36	142	2	15	396	
		%	41.4	9.3	9.1	35.9	0.5	3.8	100.0	
전체		N	399	91	47	360	17	26	940	
		%	42.4	9.7	5.0	38.3	1.8	2.8	100.0	

성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남자는 스트레스 해소(41.3%)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미활동(37.4%), 피로회복(9.7%)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도 스트레스 해소(43.6%)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미활동(39.2%), 피로회복(9.6%)순으로 나

타났다. 전체분석 결과 역시 스트레스 해소(42.4%)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미활동(38.3%), 피로회복(9.7%)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여자 모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이 필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대도시는 스트레스 해소(44.6%)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미활동(41.2%), 피로회복(6.7%)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도 스트레스 해소(40.0%)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미활동(34.9%), 피로회복(13.2%)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 역시 스트레스 해소(42.4%)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미활동(38.3%), 피로회복(9.7%)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이 필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자연계는 스트레스 해소(43.7%)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미활동(40.1%), 피로회복(8.2%)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도 스트레스 해소(42.2%)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미활동(38.0%), 피로회복(13.9%)순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계도 스트레스 해소(41.4%)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미활동(35.9%), 피로회복(9.3%)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도 스트레스 해소(42.4%)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미활동(38.3%), 피로회복(9.7%)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계, 인문계, 예·체능계 모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이 필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평일에 참여하는 여가활동

평일에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친구와 만남, 독서, 레저스포츠 활동, 인터넷 검색, 유흥장소 방문, 취미활동, 문화활동, 봉사활동, 여행, TV시청·라디오시청, 종교활동, 예능배우기, 스포츠활동 배우기, 기타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변인별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9>는 평일에 참여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빈도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9> 평일에 참여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빈도분석

		친구와 만남	독서	레저 스포츠 활동	인터넷 검색	유흥 장소 방문	취미 활동	문화 활동	봉사 활동	여행	TV시청 라디오 시청	종교 활동	예능 배우기	스포츠 활동	기타	전체	
성별	남	N	94	41	92	75	19	38	23	1	3	20	3	4	44	6	463
		%	20.3	8.9	19.9	16.2	4.1	8.2	5.0	0.2	0.6	4.3	0.6	0.9	9.5	1.3	100
	여	N	162	34	33	73	13	42	31	5	3	35	2	8	23	13	477
		%	34.0	7.1	6.9	15.3	2.7	8.8	6.5	1.0	0.6	7.3	0.4	1.7	4.8	2.7	100
	전체	N	256	75	125	148	32	80	54	6	6	55	5	12	67	19	940
		%	27.2	8.0	13.3	15.7	3.4	8.5	5.7	0.6	0.6	5.9	0.5	1.3	7.1	2.0	100
지역	대도시	N	145	36	69	78	17	44	30	1	1	29	3	8	34	12	507
		%	28.6	7.1	13.6	15.4	3.4	8.7	5.9	0.2	0.2	5.7	0.6	1.6	6.7	2.4	100
	중·소 도시	N	111	39	56	70	15	36	24	5	5	26	2	4	33	7	433
		%	25.6	9.0	12.9	16.2	3.5	8.3	5.5	1.2	1.2	6.0	0.5	0.9	7.6	1.6	100
	전체	N	256	75	125	148	32	80	54	6	6	55	5	12	67	19	940
		%	27.2	8.0	13.3	15.7	3.4	8.5	5.7	0.6	0.6	5.9	0.5	1.3	7.1	2.0	100
전공	자연계	N	115	30	33	73	16	25	25	3	3	31	3	6	7	8	37
		%	30.4	7.9	8.7	19.3	4.2	6.6	6.6	0.8	0.8	8.2	0.8	1.6	1.9	2.1	100
	인문계	N	54	20	8	23	5	17	8	2	0	9	1	2	10	7	166
		%	32.5	12.0	4.8	13.9	3.0	10.2	4.8	1.2	0.0	5.4	0.6	1.2	6.0	4.2	100
	예·체 능계	N	87	25	84	52	11	38	21	1	3	15	1	4	50	4	396
		%	22.0	6.3	21.2	13.1	2.8	9.6	5.3	0.3	0.8	3.8	0.3	1.0	12.6	1.0	100
전체	N	256	75	125	148	32	80	54	6	6	55	5	12	67	19	940	
	%	27.2	8.0	13.3	15.7	3.4	8.5	5.7	0.6	0.6	5.9	0.5	1.3	7.1	2.0	100	

성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남자는 친구와 만남(20.3%)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레저스포츠 활동(19.9%), 인터넷 검색(16.2%)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친구와 만남(34.0%)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검색(15.3%), 취미활동(8.8%)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 친구와의 만남(27.2%)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검색(15.7%), 레저스포츠 활동(13.3%)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여자 모두 친구와의 만남이 평일에 하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지역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대도시는 친구와의 만남(28.6%)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검색(15.4%), 레저스포츠 활동(13.6%)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도 친구와의 만남(25.6%)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검색(16.2%), 레저스포츠 활동(12.9%)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 역시 친구와의 만남(27.2%)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검색(15.7%), 레저스포츠 활동(13.3%)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와 중·소도시모두 친구와의 만남이 평일에 하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자연계는 친구와의 만남(30.4%)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검색(19.3%), 레저스포츠 활동(8.7%)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는 친구와의 만남(32.5%)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검색(13.9%), 독서(12.0%)순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계는 친구와의 만남(22.0%)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레저스포츠 활동(21.2%), 인터넷 검색(13.1%)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 친구와의 만남(27.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검색(15.7%), 레저스포츠 활동(13.3%)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계, 인문계, 예·체능계 모두 친구와의 만남이 평일에 하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평일에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

평일에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은 친구와 만남, 독서, 레저스포츠 활동, 인터넷 검색, 유흥장소 방문, 취미활동, 문화활동, 봉사활동, 여행, TV시청·라디오시청, 종교활동, 예능배우기, 스포츠활동 배우기, 기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변인별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10>은 평일에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에 대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빈도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10> 평일에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에 대한 빈도분석

		친구와 만남	독서	레저 스포츠 활동	인터넷 검색	유흥 장소 방문	취미 활동	문화 활동	봉사 활동	여행	TV시청 라디오 시청	종교 활동	예능 배우기	스포츠 활동	기타	전체	
성별	남	N	24	21	131	14	30	23	39	10	85	3	1	22	55	5	463
		%	5.2	4.5	28.3	3.0	6.5	5.0	8.4	2.2	18.4	0.6	0.2	4.8	11.9	1.1	100
	여	N	24	10	120	2	14	21	48	15	90	5	1	48	68	11	477
		%	5.0	2.1	25.2	0.4	2.9	4.4	10.1	3.1	18.9	1.0	0.2	10.1	14.3	2.3	100
	전체	N	48	1	251	16	44	44	87	25	175	8	2	70	123	1	940
		%	5.1	3.3	26.7	1.7	4.7	4.7	9.3	2.7	18.6	0.9	0.2	7.4	13.1	1.7	100
지역	대도시	N	23	13	136	7	20	24	44	13	98	2	1	40	76	10	507
		%	4.5	2.6	26.8	1.4	3.9	4.7	8.7	2.6	19.3	0.4	0.2	7.9	15.0	2.0	100
	중·소 도시	N	25	18	115	9	24	20	43	12	77	6	1	30	47	6	433
		%	5.8	4.2	26.6	2.1	5.5	4.6	9.9	2.8	17.8	1.4	0.2	6.9	10.9	1.4	100
	전체	N	48	31	251	16	44	44	87	25	175	8	2	70	123	16	940
		%	5.1	3.3	26.7	1.7	4.7	4.7	9.3	2.7	18.6	0.9	0.2	7.4	13.1	1.7	100
전공	자연계	N	17	9	106	5	17	15	33	6	72	5	0	43	45	5	378
		%	4.5	2.4	28.0	1.3	4.5	4.0	8.7	1.6	19.0	1.3	0.0	11.4	11.9	1.3	100
	인문계	N	5	9	47	2	9	10	15	7	28	0	1	8	19	6	166
		%	3.0	5.4	28.3	1.2	5.4	6.0	9.0	4.2	16.9	0.0	0.6	4.8	11.4	3.6	100
	예·체 능계	N	26	13	98	9	18	19	39	12	75	3	1	19	59	5	396
		%	6.6	3.3	24.7	2.3	4.5	4.8	9.8	3.0	18.9	0.8	0.3	4.8	14.9	1.3	100
전체	N	48	31	251	16	44	44	87	25	175	8	2	70	123	16	940	
	%	5.1	3.3	26.7	1.7	4.7	4.7	9.3	2.7	18.6	0.9	0.2	7.4	13.1	1.7	100.0	

성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남자는 레저스포츠 활동(28.3%)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행(18.4%), 스포츠활동 배우기(11.9%)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도 레저스포츠 활동(25.2%)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행(18.9%), 스포츠활동 배우기(14.3%)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 역시 레저스포츠 활동(26.7%)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행(18.6%), 스포츠활동 배우기(13.1%)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여자 모두 레저스포츠 활동이 평일에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에 필요한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대도시는 레저스포츠 활동(26.8%)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행(19.3%), 스포츠활동 배우기(15.0%)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도 레저스포츠 활동(26.6%)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행(17.8%), 스포츠활동 배우기(10.9%)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 역시 레저스포츠 활동(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행(18.6%), 스포츠활동 배우기(13.1%)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레저스포츠 활동이 평일에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에 필요한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자연계는 레저스포츠 활동(28.0%)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행(19.0%), 스포츠활동 배우기(11.9%)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도 레저스포츠 활동(28.3%)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행(16.9%), 스포츠활동 배우기(11.4%)순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계 역시 레저스포츠 활동(24.7%)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행(18.9%), 스포츠활동 배우기(14.9%)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 결과도 레저스포츠 활동(26.7%)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행(18.6%), 스포츠활동(13.1%)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계, 인문계, 예·체능계 모두 레저스포츠 활동이 평일에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에 필요한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보완·신설 되어야 하는 여가활동

보완·신설 되어야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공원·유원지,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극장, 도서관, 각종학원, 등산로, 구민회관, 기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변인별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11>은 보완·신설 되어야 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빈도 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11> 보완·신설 되어야 하는 여가활동 시설

		공원· 유원지	문화센터	스포츠 센터	극장	도서관	각종학원	등산로	구민회관	기타	전체	
성별	남	N	101	94	165	39	14	9	19	10	12	463
		%	21.8	20.3	35.6	8.4	3.0	1.9	4.1	2.2	2.6	100
	여	N	120	150	96	56	16	9	8	5	17	477
		%	25.2	31.4	20.1	11.7	3.4	1.9	1.7	1.0	3.6	100
	전체	N	221	244	261	95	30	18	27	15	29	940
		%	23.5	26.0	27.8	10.1	3.2	1.9	2.9	1.6	3.1	100
지역	대도시	N	131	126	140	42	16	7	17	8	20	507
		%	25.8	24.9	27.6	8.3	3.2	1.4	3.4	1.6	3.9	100
	중·소 도시	N	90	118	121	53	14	11	10	7	9	433
		%	20.8	27.3	27.9	12.2	3.2	2.5	2.3	1.6	2.1	100
	전체	N	221	244	261	95	30	18	27	15	29	940
		%	23.5	26.0	27.8	10.1	3.2	1.9	2.6	1.6	3.1	100
전공	자연계	N	95	108	92	42	13	3	13	1	8	378
		%	25.9	28.6	24.3	11.1	3.4	0.8	3.4	0.3	2.1	100
	인문계	N	34	52	37	19	6	5	2	4	7	166
		%	20.5	31.3	22.3	11.4	3.6	3.0	1.2	2.4	4.2	100
	예·체 능계	N	89	84	132	34	11	10	12	10	14	396
		%	22.5	21.2	33.3	8.6	2.8	2.5	3.0	2.5	3.5	100
전체	N	221	244	261	95	30	18	27	15	29	940	
	%	23.5	26.0	27.8	10.1	3.2	1.9	2.9	1.6	3.1	100	

성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남자는 스포츠센터(35.6%)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원·유원지(21.8%), 문화센터(20.3%)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문화센터(31.4%)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원·유원지(25.2%), 스포츠센터(20.1%)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 스포츠센터(27.8%)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센터(26.0%), 공원·유원지(23.5%)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는 스포츠센터, 여자는 문화센터가 보완·신설되어야 하는 여가활동 시설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대도시는 스포츠센터(27.6%)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원·유원지(25.8%), 문화센터(24.9%)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는 스포츠센터(27.9%)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센터(27.3), 공원·유원지(20.8%)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 스포츠센터(27.8%)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센터(26.0%), 공원·유원지(23.5%)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와 중소도시모두 스포츠센터가 보완·신설되어야 하는 여가활동 시설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자연계는 문화센터(28.6%)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원·유원지(25.9%), 스포츠센터(24.3%)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는 문화센터(31.3%)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포츠센터(22.3%), 공원·유원지(20.5%)순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계는 스포츠센터(33.3%)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원·유원지(22.5%), 문화센터(21.2%)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는 스포츠센터(27.8%)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센터(26.0%), 공원·유원지(23.5%)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계와 인문계에서 문화센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체능계는 스포츠센터가 보완·신설되어야 하는 여가활동 시설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여가활동의 동반자

여가활동의 동반자는 혼자, 지도자, 가족, 동성친구, 이성친구, 선·후배, 동아리, 동호회, 기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변인별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12> 여가활동 동반자에 대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빈도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12> 여가활동의 동반자

			혼자	지도자	가족	동성 친구	이성 친구	선·후배	동아리	동호회	기타	전체
성별	남	N	41	15	37	185	89	29	28	19	20	463
		%	8.9	3.2	8.0	40.0	19.2	6.3	6.0	4.1	4.3	100
	여	N	60	8	44	233	79	9	19	11	14	477
		%	12.6	1.7	9.2	48.8	16.6	1.9	4.0	2.3	2.9	100
	전체	N	101	23	81	418	168	38	47	30	34	940
		%	10.7	2.4	8.6	44.5	17.9	4.0	5.0	3.2	3.6	100.0
지역	대도시	N	57	10	36	238	88	18	26	16	18	507
		%	11.2	2.0	7.1	46.9	17.4	3.6	5.1	3.2	3.6	100
	중·소 도시	N	44	13	45	180	80	20	21	14	16	433
		%	10.2	3.0	10.4	41.6	18.5	4.6	4.8	3.2	3.7	100
	전체	N	101	23	81	418	168	38	47	30	34	940
		%	10.7	2.4	8.6	44.5	17.9	4.0	5.0	3.2	3.6	100.0
전공	자연계	N	46	7	38	172	77	8	12	8	10	378
		%	12.2	1.9	10.1	45.5	20.4	2.1	3.2	2.1	2.6	100
	인문계	N	24	3	10	69	34	6	6	7	7	166
		%	14.5	1.8	6.0	41.6	20.5	3.6	3.6	4.2	4.2	100
	예·체 능계	N	31	13	33	177	57	24	29	15	17	396
		%	7.8	3.3	8.3	44.7	14.4	6.1	7.3	3.8	4.3	100
전체	N	101	23	81	418	168	38	47	30	34	940	
	%	10.7	2.4	8.6	44.5	17.9	4.0	5.0	3.2	3.6	100.0	

성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남자는 동성친구(40.0%)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성친구(19.2%), 혼자(8.9%)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도 동성친구(48.8%)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성친구(16.6%), 혼자(12.6%)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 역시 동성친구(44.5%)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성친구(17.9%), 혼자(10.7%)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여자 모두 동성친구와 여가활동 하는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대도시는 동성친구(46.9%)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성친구(17.4%), 혼자(11.2%)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는 동성친구(41.6%)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성친구(18.5%), 가족(10.4%)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 동성친구(44.5%)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성친구(17.9%), 혼자(10.7%)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동성친구와 여가활동 하는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자연계는 동성친구(45.5%)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성친구(20.4%), 혼자(12.2%)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도 동성친구(41.6%)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성친구(20.5%), 혼자(14.5%)순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계는 동성친구(44.7%)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성친구(14.4%), 가족(8.3%)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 동성친구(44.5%)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성친구(17.9%), 혼자(10.7%)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계, 인문계, 예체능계 모두 동성친구와 여가활동 하는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여가활동의 장애요인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은 시설부족, 같이 즐길 사람이 없어서, 활동방법 무지, 비용부족, 시간부족, 정신적 여유부족, 체력부족, 가족의 이해부족, 기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변인별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13>은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빈도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13> 여가활동의 장애요인

			시설 부족	같이 즐길 사람이 없어서	활동방 법 무지	비용 부족	시간 부족	정신적 여유부족	체력 부족	가족의 이해부족	기타	전체
성별	남	N	99	43	29	135	103	27	15	8	4	463
		%	21.4	9.3	6.3	29.2	22.2	5.8	3.2	1.7	0.9	100
	여	N	98	16	18	147	124	43	6	12	13	477
		%	20.5	3.4	3.8	30.8	26.0	9.0	1.3	2.5	2.7	100
	전체	N	197	59	47	282	227	70	21	20	17	940
		%	21.0	6.3	5.0	30.0	24.1	7.4	2.2	2.1	1.8	100.0
지역	대도시	N	83	30	26	168	135	36	6	12	11	507
		%	16.4	5.9	5.1	33.1	26.6	7.1	1.2	2.4	2.2	100
	중·소 도시	N	114	29	21	114	92	34	15	8	6	433
		%	26.3	6.7	4.8	26.3	21.2	7.9	3.5	1.8	1.4	100
	전체	N	197	59	47	282	227	70	21	20	17	940
		%	21.0	6.3	5.0	30.0	24.1	7.1	2.2	2.1	1.8	100.0
전공	자연계	N	90	20	11	121	92	25	5	7	7	378
		%	23.8	5.3	2.9	32.0	24.3	6.6	1.3	1.9	1.9	100
	인문계	N	32	17	10	42	39	17	1	5	3	166
		%	19.3	10.2	6.0	25.3	23.5	10.2	0.6	3.0	1.8	100
	예·체 능계	N	75	22	26	119	96	28	15	8	7	396
		%	18.9	5.6	6.6	30.1	24.2	7.1	3.8	2.0	1.8	100
전체	N	197	59	47	282	227	70	21	20	17	940	
	%	21.0	6.3	5.0	30.0	24.1	7.4	2.2	2.1	1.8	100.0	

성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남자는 비용부족(29.2%)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부족(22.2%), 시설부족(21.4%)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도 비용부족(30.8%)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부족(26.0%), 시설부족(20.5%)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 결과 역시 비용부족(30.0%)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부족(24.1%), 시설부족(21.0%)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여자 모두 여가활동 장애요인으로 비용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대도시는 비용부족(33.1%)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부족(26.6%), 시설부족(16.4%)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는 비용부족(26.3%)요인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설부족(26.3%), 시간부족(21.2%)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 비용부족(30.0%)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부족(24.1%), 시설부족(21.0%)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비용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자연계는 비용부족(32.0%)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부족(24.3%), 시설부족(23.8%)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도 비용부족(25.3%)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부족(23.5%), 시설부족(19.3%)순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계도 비용부족(30.1%)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부족(24.2%), 시설부족(18.9%)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 역시 비용부족(30.0%)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부족(24.1%), 시설부족(21.0%)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계, 인문계, 예·체능계 모두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비용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관한 분석

여가활동 참여정도는 참여정도(기간), 참여정도(빈도), 시간(평일·주말), 비용(평일·주말)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변인별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정도 분석

<표 14>와 <표 15>는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분산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14>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성별 간 기술통계량

평균(표준편차)

성별	참여정도(기간)	참여정도(빈도)	시간(평일)	시간(주말)	비용(평일)	비용(주말)
남	33.96(38.01)	3.17(6.29)	2.84(2.42)	4.18(3.18)	2.41(1.92)	2.89(2.14)
여	32.55(39.31)	3.06(12.23)	2.71(1.87)	4.64(4.09)	2.75(2.46)	3.13(2.08)
합계	33.24(38.66)	3.11(9.76)	2.77(2.16)	4.41(3.67)	2.58(2.21)	3.01(2.12)

<표 15>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성별 간 분산분석

구성요인	변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참여정도(기간)	집단-간	471.159	1	471.159	.315	.575
	집단-내	1403308.564	938	1496.065		
	합계	1403779.723	939			
참여정도(빈도)	집단-간	2.943	1	2.943	.031	.861
	집단-내	89457.877	938	95.371		
	합계	89460.820	939			
시간(평일)	집단-간	3.558	1	3.558	.764	.382
	집단-내	4371.177	938	4.660		
	합계	4374.735	939			
시간(주말)	집단-간	48.831	1	48.831	3.626	.057
	집단-내	12631.016	938	13.466		
	합계	12679.847	939			
비용(평일)	집단-간	27.205	1	27.205	5.574	.018*
	집단-내	4577.969	938	4.881		
	합계	4605.174	939			
비용(주말)	집단-간	13.305	1	13.305	2.980	.085
	집단-내	4188.542	938	4.465		
	합계	4201.847	939			

*p<.05

<표 15>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성별 간 비교에서, 성별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비용(평일)(F=5.574, p=0.018)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하여보면, <표 14> 비용(평일) 남자 M=2.41, 여자M=2.75로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지역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정도 분석

<표 16>과 <표 17>은 지역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분산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16>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지역별 기술통계량

평균(표준편차)

지역	참여정도(기간)	참여정도(빈도)	시간(평일)	시간(주말)	비용(평일)	비용(주말)
대도시	33.98(39.04)	3.13(7.96)	2.71(2.11)	4.21(3.46)	2.67(2.42)	2.97(1.91)
중소도시	32.39(38.25)	3.10(11.53)	2.85(2.21)	4.66(3.91)	2.47(1.95)	3.06(2.33)
합계	33.24(38.66)	3.11(9.76)	2.77(2.16)	4.41(3.67)	2.58(2.21)	3.01(2.12)

<표 17>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지역별 분산분석

구성요인	변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참여정도(기간)	집단-간	589.190	1	589.190	.394	.530
	집단-내	1403190.534	938	1495.939		
	합계	1403779.723	939			
참여정도(빈도)	집단-간	.169	1	.169	.002	.966
	집단-내	89460.651	938	95.374		
	합계	89460.820	939			
시간(평일)	집단-간	4.416	1	4.416	.948	.331
	집단-내	4370.319	938	4.659		
	합계	4374.735	939			
시간(주말)	집단-간	47.453	1	47.453	3.524	.061
	집단-내	12632.394	938	13.467		
	합계	12679.847	939			
비용(평일)	집단-간	9.293	1	9.293	1.897	.169
	집단-내	4595.881	938	4.900		
	합계	4605.174	939			
비용(주말)	집단-간	2.162	1	2.162	.483	.487
	집단-내	4199.684	938	4.477		
	합계	4201.847	939			

<표 17>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지역별 비교에서, 지역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 곳은 없었고 지역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지역에 따른 기술통계량을 비교해 보면, 지역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전공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정도 분석

<표 18>과 <표 19>는 전공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분산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18>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기술통계량

평균(표준편차)

전공	참여정도(기간)	참여정도(빈도)	시간(평일)	시간(주말)	비용(평일)	비용(주말)
자연계	31.50(38.86)	2.87(12.32)	2.80(1.95)	4.94(4.39)	2.62(2.08)	3.12(2.38)
인문계	36.22(45.45)	2.40(1.51)	2.52(1.41)	3.79(2.23)	2.33(1.29)	2.93(1.88)
예·체능계	33.66(35.26)	3.64(8.95)	2.86(2.56)	4.34(3.37)	2.64(2.61)	2.95(1.93)
합계	33.24(38.66)	3.11(9.76)	2.77(2.16)	4.41(3.67)	2.58(2.21)	3.01(2.12)

<표 19>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분산분석

구성요인	변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참여정도(기간)	집단-간	2691.814	2	1345.907	.900	.407
	집단-내	1401087.910	937	1495.291		
	합계	1403779.723	939			
참여정도(빈도)	집단-간	215.877	2	107.938	1.133	.322
	집단-내	89244.943	937	95.245		
	합계	89460.820	939			
시간(평일)	집단-간	13.894	2	6.947	1.493	.225
	집단-내	4360.841	937	4.654		
	합계	4374.735	939			
시간(주말)	집단-간	112.678	2	56.339	4.201	.015*
	집단-내	12567.169	937	13.412		
	합계	12679.847	939			
비용(평일)	집단-간	13.004	2	6.502	1.327	.266
	집단-내	4592.171	937	4.901		
	합계	4605.174	939			
비용(주말)	집단-간	7.185	2	3.593	.802	.449
	집단-내	4194.662	937	4.477		
	합계	4201.847	939			

*p<0.5

<표 19>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비교에서,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시간(주말)(F=4.201, p=0.01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하여보면, <표 18> 시간(주말) 자연계 M=4.94, 인문계M=3.79, 예·체능계M=4.34로서 자연계가 인문계 예·체능계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9-1>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차이

전공	N	시간(주말)	
		1	2
자연계	166	3.79	
인문계	396	4.34	4.34
예·체능계	378		4.76
유의확률		0.081	0.183

Duncan의 방법으로 시간(주말)에 대한 평균 검정 결과 평균크기는 자연계 < 인문계 < 예·체능계 순임을 알 수 있다.

2. 체육활동 참여인식, 참여경향, 참여정도, 참여종목 분석

1)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관한 분석

체육활동 참여인식은 체육활동 의미, 체육활동의 필요성, 신체적 필요성, 정서적 필요성, 심리적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변인 별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인식 분석

<표 20>과 <표 21>은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분산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20>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성별 간 기술통계량

평균(표준편차)

성별	체육활동 의미	체육활동의 필요성	신체적 필요성	정서적 필요성	심리적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
남	3.49(.85)	4.30(.85)	4.33(.87)	4.06(.89)	4.05(.86)	4.01(.95)
여	3.16(1.50)	4.19(.77)	4.32(2.40)	4.04(.76)	3.99(.78)	3.91(.82)
합계	3.32(1.24)	4.24(.81)	4.33(1.81)	4.05(.83)	4.02(.82)	3.96(.89)

<표 21>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성별 간 분산분석

구성요인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체육활동 의미	집단-간	26.390	1	26.390	17.578	.000***
	집단-내	1408.226	938	1.501		
	합계	1434.616	939			
체육활동의 필요성	집단-간	2.599	1	2.599	3.938	.047*
	집단-내	619.124	938	.660		
	합계	621.723	939			
신체적 필요성	집단-간	2.210E-02	1	2.210E-02	.007	.935
	집단-내	3086.365	938	3.290		
	합계	3086.387	939			
정서적 필요성	집단-간	6.309E-02	1	6.309E-02	.092	.762
	집단-내	642.587	938	.685		
	합계	642.650	939			
심리적 필요성	집단-간	.852	1	.852	1.267	.261
	집단-내	630.722	938	.672		
	합계	631.574	939			
사회적 필요성	집단-간	2.705	1	2.705	3.435	.064
	집단-내	738.677	938	.788		
	합계	741.382	939			

*p<.05, ***p<.001

<표 21>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성별 간 비교에서, 성별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체육활동 의미($F=17.578$, $p=0.000$) 및 체육활동의 필요성($F=3.938$, $p=0.04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하여보면, <표 20> 체육활동 의미에서는 남자 $M=3.49$, 여자 $M=3.16$, 체육활동의 필요성에서는 남자 $M=4.30$, 여자 $M=4.19$ 로서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지역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인식 분석

<표 22>와 <표 23>은 지역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분산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22>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지역별 기술 통계량

평균(표준편차)

지역	체육활동 의미	체육활동의 필요성	신체적 필요성	정서적 필요성	심리적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
대도시	3.38(1.48)	4.31(.77)	4.33(.77)	4.12(.78)	4.06(.79)	4.02(.85)
중소도시	3.25(.87)	4.17(.86)	4.32(2.54)	3.97(.87)	3.97(.86)	3.89(.92)
합계	3.32(1.24)	4.24(.81)	4.33(1.81)	4.05(.83)	4.02(.82)	3.96(.89)

<표 23>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지역별 분산분석

구성요인	변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체육활동 의미	집단-간	4.023	1	4.023	2.638	.105
	집단-내	1430.593	938	1.525		
	합계	1434.616	939			
체육활동의 필요성	집단-간	4.648	1	4.648	7.065	.008**
	집단-내	617.075	938	.658		
	합계	621.723	939			
신체적 필요성	집단-간	6.699E-02	1	6.699E-02	.020	.887
	집단-내	3086.320	938	3.290		
	합계	3086.387	939			
정서적 필요성	집단-간	5.141	1	5.141	7.567	.006**
	집단-내	637.509	938	.680		
	합계	642.650	939			
심리적 필요성	집단-간	1.749	1	1.749	2.605	.107
	집단-내	629.825	938	.671		
	합계	631.574	939			
사회적 필요성	집단-간	4.124	1	4.124	5.247	.022*
	집단-내	737.258	938	.786		
	합계	741.382	939			

*p<0.5, **p<.01

<표 23>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지역별 비교에서, 지역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체육활동의 필요성(F=7.065, p=0.008), 체육활동의 필요성(정서적)(F=7.567, p=0.006), 체육활동의 필요성(사회적)(F=5.247, p=0.02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하여보면, <표 22> 체육활동의 필요성에 서는 대도시 M=4.31, 중소도시 M=4.17, 체육활동의 필요성(정서적)에서는 대도시

M=4.12, 중·소도시 M=3.97, 체육활동의 필요성(사회적) 대도시 M=4.02, 중·소도시 M=3.89로서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3) 전공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인식 분석

<표 24>와 <표 25>는 전공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분산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24> 체육활동에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기술통계량

평균(표준편차)

전공	체육활동 의미	체육활동의 필요성	신체적 필요성	정서적 필요성	심리적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
자연계	3.10(1.60)	4.19(.77)	4.22(.80)	3.99(.77)	3.97(.79)	3.90(.84)
인문계	3.16(.81)	4.31(.72)	4.61(3.92)	4.00(.78)	3.95(.84)	3.86(.86)
예·체능계	3.60(.88)	4.27(.89)	4.31(.86)	4.13(.89)	4.10(.84)	4.06(.94)
합계	3.32(1.24)	4.24(.81)	4.33(1.81)	4.05(.83)	4.02(.82)	3.96(.89)

<표 25>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분산분석

구성요인	변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체육활동 의미	집단-간	54.350	2	27.175	18.448	.000***
	집단-내	1380.266	937	1.473		
	합계	1434.616	939			
체육활동의 필요성	집단-간	1.864	2	.932	1.409	.245
	집단-내	619.860	937	.662		
	합계	621.723	939			
신체적 필요성	집단-간	17.650	2	8.825	2.695	.068
	집단-내	3068.737	937	3.275		
	합계	3086.387	939			
정서적 필요성	집단-간	4.544	2	2.272	3.337	.036*
	집단-내	638.106	937	.681		
	합계	642.650	939			
심리적 필요성	집단-간	4.381	2	2.191	3.273	.038*
	집단-내	627.193	937	.669		
	합계	631.574	939			
사회적 필요성	집단-간	7.008	2	3.504	4.471	.012*
	집단-내	734.374	937	.784		
	합계	741.382	939			

* $p < .05$, *** $p < .001$

<표 25>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비교에서, 전공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체육활동 의미($F=18.448$, $p=0.000$), 체육활동의 필요성(정서적)($F=3.337$, $p=0.036$), 체육활동의 필요성(심리적)($F=3.273$, $p=0.038$), 체육활동의 필요성(사회적)($F=4.471$, $p=0.01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하여보면, <표 24> 체육활동 의미에서는

자연계 M=3.10, 인문계 M=3.16, 예·체능계 M=3.60, 체육활동의 필요성(정서적)에서는 자연계 M=3.99, 인문계 M=4.00, 예·체능계 M=4.13, 체육활동의 필요성(심리적) 자연계 M=3.97, 인문계 M=3.95, 예·체능계 M=4.10, 체육활동의 필요성(사회적) 자연계 M=3.90, 인문계 M=3.86, 예·체능계 M=4.06으로서 예·체능계가 자연계, 인문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5-1>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차이

전공	N		N		N		N	
	1	2	1	1	2	1	2	
자연계	378	3.10	378	3.99	166	3.95	166	3.86
인문계	166	3.16	166	4.00	378	3.97	378	3.90
예·체능계	396	3.60	396	4.13	396	4.10	396	4.06
유의확률	0.575	1.000	0.054	0.816	0.060	.565	1.000	

Duncan의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체육활동 의미와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체육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평균 검정 결과 평균크기는 자연계 < 인문계 < 예·체능계 임을 알 수 있다,

2) 체육활동 참여경향에 관한 분석

(1) 체육활동의 필요이유

체육활동의 필요이유로는 건강관리, 기분전환, 사교도움, 기능향상, 비만관리, 체형관리, 자기수양, 기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변인별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26> 체육활동 필요이유에 대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빈도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26> 체육활동 필요이유

		건강 관리	기분 전환	사교 도움	기능 향상	비만 관리	체형 관리	자기 수양	기타	전체	
성별	남	N	216	82	36	35	15	37	35	7	463
		%	46.7	17.7	7.8	7.6	3.2	8.0	7.6	1.5	100.0
	여	N	233	68	16	16	47	62	24	11	477
		%	48.8	14.3	3.4	3.4	9.9	13.0	5.0	2.3	100.0
	전체	N	449	150	52	51	62	99	59	18	940
		%	47.8	16.0	5.5	5.4	6.6	10.5	6.3	1.9	100.0
지역	대도시	N	262	84	24	21	28	49	30	9	507
		%	51.7	16.6	4.7	4.1	5.5	9.7	5.9	1.8	100.0
	중소 도시	N	187	66	28	30	34	50	29	9	433
		%	43.2	15.2	6.5	6.9	7.9	11.5	6.7	2.1	100.0
	전체	N	449	150	52	51	62	99	59	18	940
		%	47.8	16.0	5.5	5.4	6.6	10.5	6.3	1.9	100.0
전공	자연계	N	187	60	19	10	33	50	17	2	378
		%	49.5	15.9	5.0	2.6	8.7	13.2	4.5	0.5	100.0
	인문계	N	84	23	8	5	12	16	15	3	166
		%	50.6	13.9	4.8	3.0	7.2	9.6	9.0	1.8	100.0
	예·체능 계	N	178	67	25	36	17	33	27	13	396
		%	44.9	16.9	6.3	9.1	4.3	8.3	6.8	3.3	100.0
전체	N	449	150	52	51	62	99	59	18	940	
	%	47.8	16.0	5.5	5.4	6.6	10.5	6.3	1.9	100.0	

성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남자는 건강관리(46.7%)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분전환(17.7%), 체형관리(8.0%)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도 건강관리(48.8%)요인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분전환(14.3%), 체형관리(13.0%)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 결과에서 역시 건강관리(47.8%)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분전환(16.0%), 체형관리(10.5%)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여자 모두 건강관리가 체육활동이 필요한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대도시는 건강관리(51.7%)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분전환(16.6%), 체형관리(9.7%)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도 건강관리(43.2%)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분전환(15.2%), 체형관리(11.5%)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에서 역시 건강관리(47.8%)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분전환(16.0%), 체형관리(10.5%)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건강관리가 체육활동이 필요한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자연계는 건강관리(49.5%)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분전환(15.9%), 체형관리(13.2%)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도 건강관리(50.6%)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분전환(13.9%), 체형관리(9.6%)순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계는 건강관리(44.9%)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분전환(16.9%), 기능향상(9.1%)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에서 역시 건강관리(47.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분전환(16.0%), 체형관리(10.5%)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계, 인문계, 예·체능계 모두 건강관리가 체육활동이 필요한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체육활동 동반자

체육활동 동반자로는 혼자, 지도자의 강습, 가족, 동성친구, 이성친구, 선·후배, 동아리, 동호인, 기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변인별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표27>은 체육활동의 동반자에 대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빈도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27> 체육활동의 동반자

		혼자	지도자의 강습	가족	동성친구	이성친구	선·후배	동아리	동호인	기타	전체	
성별	남	N	69	22	42	185	20	54	38	20	13	463
		%	14.9	4.8	9.1	40.0	4.3	11.7	8.2	4.3	2.8	100.0
	여	N	122	41	49	174	28	23	14	3	23	477
		%	25.6	8.6	10.3	36.5	5.9	4.8	2.9	0.6	4.8	100.0
	전체	N	191	63	91	359	48	77	52	23	36	940
		%	20.3	6.7	9.7	38.2	5.1	8.2	5.5	2.4	3.8	100.0
지역	대도시	N	123	40	59	176	21	30	24	11	23	507
		%	24.3	7.9	11.6	34.7	4.1	5.9	4.7	2.2	4.5	100.0
	중소 도시	N	68	23	32	183	27	47	28	12	13	433
		%	15.7	5.3	7.4	42.3	6.2	10.9	6.5	2.8	3.0	100.0
	전체	N	191	63	91	359	48	77	52	23	36	940
		%	20.3	6.7	9.7	38.2	5.1	8.2	5.5	2.4	3.8	100.0
전공	자연계	N	98	17	41	156	25	16	7	4	14	378
		%	25.9	4.5	10.8	41.3	6.6	4.2	1.9	1.1	3.7	100.0
	인문계	N	42	11	17	64	6	9	5	3	9	166
		%	25.3	6.6	10.2	38.6	3.6	5.4	3.0	1.8	5.4	100.0
	예·체 능계	N	51	35	33	139	17	52	40	16	13	396
		%	12.9	8.8	8.3	35.1	4.3	13.1	10.1	4.0	3.3	100.0
전체	N	191	63	91	359	48	77	52	23	36	940	
	%	20.3	6.7	9.7	38.2	5.1	8.2	5.5	2.4	3.8	100.0	

성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남자는 동성친구(40.0%)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혼자(14.9%), 선·후배(11.7%)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동성친구(36.5%)요인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혼자(25.6%), 가족(10.3%)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 동성친구(38.2%)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혼자(20.3%), 가족(9.7%)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여자 모두 동성친구가 체육활동 동반자에서 필요한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대도시는 동성친구(34.7%)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혼자(24.3%), 가족(11.6%)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는 동성친구(42.3%)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혼자(15.7%), 선·후배(10.9%)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 동성친구(38.2%)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혼자(20.3%), 가족(9.7%)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동성친구가 체육활동 동반자에서 필요한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자연계는 동성친구(41.3%)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혼자(25.9%), 가족(10.8%)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도 동성친구(38.6%)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혼자(25.3%), 가족(10.2%)순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계는 동성친구(35.1%)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선·후배(13.1%), 혼자(12.9%)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 결과 동성친구(38.2%)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혼자(20.3%), 가족(9.7%)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별로는 자연계, 인문계, 예·체능계 모두 동성친구가 체육활동 동반자에서 필요한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체육활동 장소

체육활동 장소로는 집, 집·주변 공터, 체육공원, 스포츠센터, 전문체육시설, 학교, 기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변인별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28>은 체육활동의 장소에 대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빈도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28> 체육활동 장소

			집	집 주변 공터	체육공원	스포츠센터	전문체육시설	학교	기타	전체
성별	남	N	24	67	110	91	40	99	32	463
		%	5.2	14.5	23.8	19.7	8.6	21.4	6.9	100.0
	여	N	80	123	52	88	35	67	32	477
		%	16.8	25.8	10.9	18.4	7.3	14.0	6.7	100.0
	전체	N	104	190	162	179	75	166	64	940
		%	11.1	20.2	17.2	19.0	8.0	17.7	6.8	100.0
지역	대도시	N	48	93	70	108	51	102	35	507
		%	9.5	18.3	13.8	21.3	10.1	20.1	6.9	100.0
	중소 도시	N	56	97	92	71	24	64	29	433
		%	12.9	22.4	21.2	16.4	5.5	14.8	6.7	100.0
	전체	N	104	190	162	179	75	166	64	940
		%	11.1	20.2	17.2	19.0	8.0	17.7	6.8	100.0
전공	자연계	N	70	95	57	57	20	49	30	378
		%	18.5	25.1	15.1	15.1	5.3	13.0	7.9	100.0
	인문계	N	23	48	28	22	8	25	12	166
		%	13.9	28.9	16.9	13.3	4.8	15.1	7.2	100.0
	예·체 능계	N	11	47	77	100	47	92	22	396
		%	2.8	11.9	19.4	25.3	11.9	23.2	5.6	100.0
전체	N	104	190	162	179	75	166	64	940	
	%	11.1	20.2	17.2	19.0	8.0	17.7	6.8	100.0	

성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남자는 체육공원(23.8%)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21.4%), 스포츠센터(19.7%)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집 주변공터(25.8%)요인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포츠센터(18.4%), 집(16.8%)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결과 집·주변공터(20.2%)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포츠센터(19.0%), 학교(17.7%)순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로는 남자가 체육활동 장소에서 체육공원이, 여자는 집 주변공터가 체육활동 장소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대도시는 스포츠센터(21.3%)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20.1%), 집 주변공터(18.3%)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는 집 주변공터(22.4%)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체육공원(21.2%), 스포츠센터(16.4%)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결과 집 주변공터(20.2%)요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포츠센터(19.0%), 학교(17.7%)순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별로 체육활동 장소에서 대도시는 스포츠센터, 중소도시는 집 주변공터가 체육활동 장소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자연계는 집 주변공터(25.1%)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18.5%), 체육공원(15.1%)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는 집 주변공터(28.9%)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체육공원(16.9%), 학교(15.1%)순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계는 스포츠센터(25.3%)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23.2%), 체육공원(19.4%)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결과 집 주변공터(20.2%)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포츠센터(19.0%), 학교(17.7%)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별로 체육활동 장소에서 자연계와 인문계는 집 주변공터가, 예체능계는 스포츠센터가 체육활동 장소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관한 분석

체육활동 참여정도는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 체육활동의 평균회수, 체육활동의 요인, 평일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체육활동

비(평일), 체육활동비(주말)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변인별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정도 분석

<표 29>와 <표 30>은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분산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29>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성별 간 기술통계량

평균(표준편차)

성별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	체육활동의 평균회수	체육활동의 요인	평일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체육활동비 (평일)	체육활동비 (주말)
남	27.92(23.14)	3.21(3.05)	5.77(2.47)	2.13(2.33)	2.55(1.33)	2.39(1.88)	2.72(2.90)
여	18.46(19.54)	3.94(5.59)	5.69(2.65)	2.14(2.23)	2.26(2.43)	2.72(1.83)	2.74(2.08)
합계	23.12(21.90)	3.58(4.53)	5.73(2.56)	2.13(2.28)	2.40(1.97)	2.55(1.86)	2.73(2.52)

<표 30>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성별 간 분산분석

구성요인	변인	체급합	자유도	평균체급	F	유의확률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	집단-간	21021.122	1	21021.122	45.943	.000***
	집단-내	429183.809	938	457.552		
	합계	450204.931	939			
체육활동의 평균회수	집단-간	122.199	1	122.199	5.977	.015*
	집단-내	19178.817	938	20.446		
	합계	19301.016	939			
체육활동의 요인	집단-간	1.557	1	1.557	.238	.626
	집단-내	6144.886	938	6.551		
	합계	6146.443	939			
평일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집단-간	3.990E-02	1	3.990E-02	.008	.930
	집단-내	4875.071	938	5.197		
	합계	4875.111	939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집단-간	19.291	1	19.291	5.003	.026*
	집단-내	3616.900	938	3.856		
	합계	3636.190	939			
체육활동비(평일)	집단-간	25.644	1	25.644	7.450	.006*
	집단-내	3228.589	938	3.442		
	합계	3254.233	939			
체육활동비(주말)	집단-간	.147	1	.147	.023	.879
	집단-내	5956.296	938	6.350		
	합계	5956.443	939			

*p<.05, **p<.001

<표 30>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성별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F=45.943, p=0.000), 체육활동의 평균회수(F=5.977, p=0.015),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F=5.003, p=0.026), 체육활동비(평일)(F=7.450, p=0.006)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하여보면, <표 29>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 남자 M=27.92, 여자 M=18.46, 체육활동의 평균회수 남자 M=3.21, 여자 M=3.94,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남자 M=2.55, 여자 M=2.26, 체육활동비(평

일) 남자 M=2.39, 여자 M=2.72로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해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과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육활동의 평균회수와 체육활동비(평일)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지역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정도 분석

<표 31>과 <표 32>는 지역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분산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31>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지역별 기술통계량

평균(표준편차)

지역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	체육활동의 평균회수	체육활동의 요인	평일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체육활동비 (평일)	체육활동비 (주말)
대도시	25.11(22.33)	3.40(3.79)	5.67(2.79)	2.19(2.92)	2.38(2.05)	2.56(2.02)	2.84(2.91)
중소도시	20.79(21.16)	3.79(5.27)	5.80(2.26)	2.07(1.15)	2.43(1.87)	2.55(1.67)	2.61(1.96)
합계	23.12(21.90)	3.58(4.53)	5.73(2.56)	2.13(2.28)	2.40(1.97)	2.55(1.86)	2.73(2.52)

<표32>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지역별 분산분석

구성요인	변인	체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	집단-간	4367.691	1	4367.691	9.189	.003**
	집단-내	445837.240	938	475.306		
	합계	450204.931	939			
체육활동의 평균회수	집단-간	36.996	1	36.996	1.801	.180
	집단-내	19264.020	938	20.537		
	합계	19301.016	939			
체육활동의 요인	집단-간	4.136	1	4.136	.632	.427
	집단-내	6142.306	938	6.548		
	합계	6146.443	939			
평일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집단-간	3.367	1	3.367	.648	.421
	집단-내	4871.744	938	5.194		
	합계	4875.111	939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집단-간	.660	1	.660	.170	.680
	집단-내	3635.530	938	3.876		
	합계	3636.190	939			
체육활동비(평일)	집단-간	3.835E-02	1	3.835E-02	.011	.916
	집단-내	3254.195	938	3.469		
	합계	3254.233	939			
체육활동비(주말)	집단-간	12.449	1	12.449	1.964	.161
	집단-내	5943.994	938	6.337		
	합계	5956.443	939			

**p<.01

<표 32>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지역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F=9.189, p=0.00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하여보면, <표 31>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은 대도시 M=25.11, 중·소도시 M=20.79로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전공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정도 분석

<표 33>과 <표 34>는 전공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분산분석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33>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기술통계량

평균(표준편차)

전공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	체육활동의 평균회수	체육활동의 요인	평일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체육활동비 (평일)	체육활동비 (주말)
자연계	19.49(20.27)	3.62(5.71)	5.62(2.55)	2.01(2.18)	2.29(2.46)	2.61(1.82)	2.86(2.86)
인문계	21.08(21.08)	2.91(3.84)	5.69(2.43)	1.86(1.13)	2.04(1.17)	2.55(1.16)	2.54(1.14)
예·체능계	27.45(23.00)	3.83(3.37)	5.86(2.62)	2.37(2.68)	2.67(1.65)	2.50(2.12)	2.69(2.59)
합계	23.12(21.90)	3.58(4.53)	5.73(2.56)	2.13(2.28)	2.40(1.97)	2.55(1.86)	2.73(2.52)

<표 34>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분산분석

구성요인	변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	집단-간	13091.791	2	6545.896	14.032	.000***
	집단-내	437113.140	937	466.503		
	합계	450204.931	939			
체육활동의 평균회수	집단-간	99.016	2	49.508	2.416	.090
	집단-내	19202.000	937	20.493		
	합계	19301.016	939			
체육활동의 요인	집단-간	11.034	2	5.517	.843	.431
	집단-내	6135.408	937	6.548		
	합계	6146.443	939			
평일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집단-간	40.451	2	20.226	3.920	.020*
	집단-내	4834.660	937	5.160		
	합계	4875.111	939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집단-간	55.600	2	27.800	7.275	.001**
	집단-내	3580.590	937	3.821		
	합계	3636.190	939			
체육활동비(평일)	집단-간	2.615	2	1.307	.377	.686
	집단-내	3251.618	937	3.470		
	합계	3254.233	939			
체육활동비(주말)	집단-간	13.176	2	6.588	1.039	.354
	집단-내	5943.266	937	6.343		
	합계	5956.443	939			

*p<.05, **p<.01, ***p<.001

<표 34>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으로는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F=14.032, p=0.000), 평일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F=3.920, p=0.020),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F=7.275, p=0.0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표 33> 즐기는 종목의 참여 기간으로 자연계 M=19.49, 인문계 M=21.08, 예·체능계 M=27.45, 평일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자연계 M=2.01, 인문계 M=1.86, 예·체능계 M=2.37,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은 자연계 M=2.29, 인문계 M=2.04, 예·체능계 M=2.67로 나타났다. 예·체능계가 자연계, 인문계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1>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차이

전공	N		N		N	
	1	2	1	2	1	2
자연계	378	19.49	166	1.86	166	2.04
인문계	166	21.08	378	2.01	378	2.29
예·체능계	396	27.45	396	2.37	396	2.67
유의확률	0.392	1.000	0.429	0.068	0.139	1.000

Duncan의 방법으로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 평일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에 대한 평균 검정 결과 평균크기 자연계 < 인문계 < 예·체능 순임을 알 수 있다.

4) 체육활동 참여종목에 관한 분석

체육활동 참여종목은 배우고 싶은 체육종목, 현재 가장 즐기는 체육종목, 해보고 싶은 체육종목, 희망하는 평생생활 체육종목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변인별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1) 성별, 지역별, 전공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정도 분석

<표 36>은 성별, 지역별, 전공별에 따른 체육활동에 대한 결과로서 아래와 같다.

<표 35> 체육활동 참여 종목

	배우고 싶은 체육종목	현재 가장 즐기는 체육종목	참여 해보고 싶은 체육종목	희망하는 평생생활 체육종목	
성별	남	1. 테니스(59명)	1. 농구(47명)	1. 골프(70명)	1. 수영(60명)
		2. 수영(51명)	2. 수영(43명)	2. 테니스(50명)	2. 축구(45명)
		3. 골프(49명)	3. 헬스(40명)	3. 수영(49명)	3. 테니스(44명)
		4. 축구(39명)	4. 축구(33명)	4. 스키(25명)	4. 헬스(44명)
		5. 야구(25명)	5. 배드민턴(25명)	5. 배구(24명)	4. 배드민턴(40명)
	여	1. 수영(68명)	1. 수영(55명)	1. 수영(85명)	1. 수영(129명)
		2. 테니스(61명)	2. 에어로빅(46명)	2. 테니스(60명)	2. 요가(55명)
		3. 골프(43명)	3. 헬스(37명)	3. 골프(49명)	3. 테니스(43명)
		4. 요가(36명)	3. 수상스키(37명)	4. 요가(36명)	4. 골프(37명)
		5. 댄스스포츠(31명)	5. 테니스(33명)	5. 스쿼시(34명)	5. 헬스(27명)
지역	대도시	1. 수영(60명)	1. 수영(67명)	1. 수영(68명)	1. 수영(119명)
		2. 테니스(57명)	2. 축구(59명)	2. 골프(67명)	2. 테니스(54명)
		3. 골프(47명)	3. 헬스(47명)	3. 테니스(64명)	3. 헬스(44명)
		4. 스키(29명)	4. 테니스(32명)	4. 요가(32명)	4. 골프(42명)
		5. 축구(24명)	5. 농구(26명)	5. 스키(31명)	5. 요가(38명)
	중소 도시	1. 테니스(63명)	1. 축구(49명)	1. 수영(66명)	1. 수영(70명)
		2. 수영(59명)	2. 김도(39명)	2. 골프(52명)	2. 야구(37명)
		3. 골프(45명)	3. 배드민턴(37명)	3. 테니스(46명)	2. 골프(37명)
		4. 야구(27명)	4. 수상스키(34명)	4. 배구(38명)	4. 테니스(33명)
		5. 축구(21명)	5. 수영(31명)	5. 스쿼시(32명)	5. 요가(31명)
전공	자연계	1. 테니스(65명)	1. 헬스(41명)	1. 수영(73명)	1. 수영(85명)
		2. 수영(56명)	2. 축구(34명)	2. 테니스(55명)	2. 테니스(42명)
		3. 골프(39명)	3. 수상스키(26명)	3. 골프(49명)	3. 요가(35명)
		4. 요가(23명)	3. 수영(26명)	4. 스쿼시(28명)	4. 골프(30명)
		5. 헬스(20명)	5. 배드민턴(24명)	5. 배구(24명)	5. 헬스(27명)
	인문계	1. 테니스(23명)	1. 축구(20명)	1. 수영(26명)	1. 수영(31명)
		2. 골프(19명)	2. 헬스(16명)	2. 테니스(23명)	2. 요가(18명)
		3. 수영(17명)	3. 수상스키(12명)	3. 골프(21명)	2. 테니스(18명)
		4. 야구(12명)	4. 수영(11명)	4. 요가(13명)	4. 야구(14명)
		5. 스키(8명)	5. 조깅(9명)	4. 배구(13명)	4. 조깅(14명)
예·체 능계	1. 수영(46명)	1. 수영(61명)	1. 골프(49명)	1. 수영(73명)	
	2. 골프(34명)	2. 축구(54명)	2. 수영(35명)	2. 헬스(39명)	
	3. 테니스(32명)	3. 헬스(38명)	3. 테니스(32명)	3. 골프(38명)	
	4. 축구(25명)	4. 배드민턴(28명)	4. 스키(29명)	4. 배드민턴(35명)	
	5. 야구(18명)	5. 테니스(27명)	5. 스쿼시(18명)	5. 축구(30명)	

성별로 실시한 교차 분석결과에서 배우고 싶은 체육종목에 남자는 테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가장 즐기는 체육종목에는 남자는 농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여 해보고 싶은 체육종목에는 남자가 골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희망하는 평생생활 체육종목으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실시한 교차 분석결과에서 배우고 싶은 체육종목에 대도시는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는 테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가장 즐기는 체육종목에는 대도시는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는 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여 해보고 싶은 체육종목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희망하는 평생생활 체육종목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실시한 교차 분석결과에서 배우고 싶은 체육종목에 자연계와 인문계는 테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체능계는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가장 즐기는 체육종목에는 자연계는 헬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문계는 축구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체능계는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여 해보고 싶은 체육종목은 자연계와 인문계는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체능계는 골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희망하는 평생생활 체육종목에서는 자연계와 인문계, 예체능계 모두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V. 논 의

여가는 경제발전에 의하여 증대된 삶의 가치구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이를 통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준다. 또한 사회 발전에 의하여 향상된 국민의 생활기회 및 생활양식을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 정책적 배려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여가는 경제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의하여 향상된 국민의 생활 조건 및 복리 증진에 대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 할 것이다(김경태, 1996). 대부분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 체육활동을 연계하는데 이는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현대사회의 각종 공해 환경 하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인의 각종 스트레스를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통하여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삶의 대한 의욕을 북돋아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매우 가치 있고 적극적인 여가형태로 인정받고 있다(임변장1991).

청소년 시절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제한과 단체 활동 중심적인 여가활동에서 탈피하여 대학생이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시간으로서 여가가 주어지면서 가장 활발하고 자발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는 사회인으로서 출발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라는 점에서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활동 향유와 그를 위한 여가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가활동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더라도 일률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생들에게 여가활동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 참여인식과 경향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성별 간 비교에서 여가 의미, 여가교육의 필요성, 여가활동 참여 후 만족인식,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중요도, 여가 중요도는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고, 여가활동 시간제약과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은 여자가 남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지역별 비교에서는 여가교육의 필요성, 여가활동 시간제약,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여가 의미, 여가활동 참여 후 만족인식,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중요도, 여가 중요도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비교에서는 여가교육의 필요성, 여가활동 참여 후 만족인식,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중요도, 여가 중요도는 비슷하게 나타났고, 여가 의미, 여가활동 시간제약,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은 예체능계가 자연계와 인문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고찰하여 보면 나성훈(2000)은 중학생들의 여가의식 조사에서 방가 후 여가활동의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여가활동이 더욱 활발하고 여학생들은 여가에 소극적 자세를 가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여자가 소비비용 제약, 여가 시간의 제약 요인들이 여가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조한범, 신명용, 박우(2002)는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의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성별, 주거형태, 종교와 같은 매개요인들이 작용한다고 주장한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여가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스트레스 해소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Biddle(1999)은 지속적으로 정규적인 운동 및 여가활동 참여

는 부정적 정서(예, 불안, 스트레스, 우울, 분노 등)는 감소시키고 긍정적 정서는 상승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유추하여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기분전환, 재충전,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정서적 측면에 도움을 받고자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평일 참가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친구와의 만남이 가장 높은 반면에 평일에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레저스포츠 활동으로 나타났다.

김호순, 한태용(2002)은 대학생의 여가의식 및 실태조사에서 대학생의 여가활동 중 친구와의 만남 요인이 그 빈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여가활동 경험의 욕구 중 레저스포츠 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레저스포츠 인구의 확산과 그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레저스포츠의 참여 욕구가 매우 높게 반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넷째, 대학교 주변의 여가시설 중에서 보완·신설되기를 희망하는 시설을 성별로 구별하면 남자는 스포츠센터를, 여자는 문화센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별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지역별로 구별하면 대도시, 중소도시 모두 스포츠센터를 신설·보완하여야 하는 장소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구별하면 자연계와 인문계는 문화센터가, 예체능계는 스포츠센터가 신설·보완하여야 하는 장소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동반자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동성친구와 함께 여가활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장애요인으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비용부족이 높게 나타났다.

노영구(2002)는 여가제약의 요인을 여가시간, 여가태도, 여가환경, 건강과 같은 요인들이 여가활동을 장애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여가제약의 요인 중 경제적 문제 또한 여가제약의 중요한 단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방열(2000)은 여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비용의 충족이 여가행동을 변화시키며 참여도를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전술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여가참여의 중요한 요인으로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비용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하게 엄성호, 표영희(1995)는 일반인의 성차에 따른 여가인식의 연구에서도 여가활동 방해요인으로 비용적 제약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설득력 있게 반영해 주고 있다. 따라서 여가활동의 참여를 높이고 이를 통한 국민의 질 높은 삶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곱째,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성별 간 비교에서 참여정도(기간), 참여정도(빈도), 시간(평일), 시간(주말), 비용(주말)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비용(평일)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지역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비교에서는 참여정도(기간), 참여정도(빈도), 시간(평일), 비용(평일), 비용(주말)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시간(주말)은 자연계가 인문계, 예·체능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성별 간 비교에서 신체적 필요성, 정서적 필요성, 심리적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체육활동 의미와 체육활동의 필요성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지역별 비교에서 체육활동 의미, 신체적 필요성, 심리적 필요성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체육활동의 필요성, 정서적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은 대도시가 중·소도시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비교에서는 체육활동의 필요성, 신체적 필요성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체육활동 의미, 정서적 필요성, 심리적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이 예·체능계가 자연계, 인문계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홉째 체육활동의 필요 이유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건강관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엄성호, 표영희(1995)는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강 유지 및 관리가 성차의 구별 없이 즐거움, 스트레스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결과로서 체육활동의 목표가 체력 육성을 통한 건강한 삶에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성별, 지역, 종교의 여러 가지 사회 인구학적 특성 요인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열 번째, 체육활동의 동반자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동성친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열한 번째 대학생들의 체육활동 장소로는 성별로 구별하면 남자는 체육공원, 여자는 집 주변 공터로 나타났다. 성별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지역별로 구별하면 대도시는 스포츠센터, 중·소도시는 집 주변 공터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구별하면 자연계와 인문계는 집 주변공터, 예체능계는 스포츠센터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열두 번째,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성별 간 비교에서 체육활동의 요인, 평일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체육활동비(주말)는 비슷하게 나타났고,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체육활동의 평균회수와 체육활동비(평일)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지역별 비교에서 체육활동의 평균회수, 체육활동의 요인, 평일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체육활동비(평일), 체육활동비(주말)는 비슷하게 나타났고,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은 대도시가 중·소도

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비교에서 체육활동의 평균회수, 체육활동의 요인, 체육활동비(평일), 체육활동비(주말)는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 평일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은 예체능계가 자연계와 인문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열세 번째, 체육활동 참여종목에서는 성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배우고 싶은 종목에 남자는 테니스, 여자는 수영이 가장 높았고, 현재 가장 즐기는 체육종목에는 남자는 농구, 여자는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보고 싶은 체육종목에 남자는 골프, 여자는 수영으로 높게 나타났고, 희망하는 평생생활 체육종목으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배우고 싶은 종목에 대도시는 수영, 중·소도시는 테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 가장 즐기는 체육종목에는 대도시는 수영, 중·소도시는 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보고 싶은 체육종목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희망하는 평생생활체육 종목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배우고 싶은 종목에 자연계와 인문계는 테니스, 예체능계는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즐기는 체육종목에는 자연계는 헬스, 인문계는 축구, 예체능계는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보고 싶은 체육종목은 자연계와 인문계는 수영, 예체능계는 골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희망하는 평생생활 체육종목에서는 자연계와 인문계, 예체능계 모두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VI.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건전한 여가 및 체육활동 참여인식과 경향을 모색하고자 여가활동의 참여인식, 참여경향, 참여정도, 체육활동의 참여인식, 참여경향, 참여정도, 참여종목을 성별, 지역별, 전공별로 대도시(서울) 중·소도시(제천)지역 중심 남·여 대학생 1000명을 단순 무선 표집방법으로 이용하여 유효자료 940부를 조사, 분석하였다.

첫째,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성별 간 비교에서 여가 의미, 여가 교육의 필요성, 여가활동 참여 후 만족인식,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중요도는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고, 여가활동 시간제약과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지역별 비교에서는 여가교육의 필요성, 여가활동 시간제약,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여가 의미, 여가활동 참여 후 만족인식,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중요도, 여가 중요도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비교에서는 여가교육의 필요성, 여가활동 참여 후 만족인식,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중요도, 여가 중요도는 비슷하게 나타났고, 여가 의미, 여가활동 시간제약, 여가활동 소비비용 제약은 예·체능계가 자연계와 인문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여가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스트레스 해소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많은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여가활동을 즐긴다는 것은 신체적 및 사회적, 정신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일 참가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친구와의 만남이 가장 높은 반면에 평일에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레저스포츠 활동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교 주변의 여가시설 중에서 보완·신설되기를 희망하는 시설을 성별로 구별하면 남자는 스포츠센터를 여자는 문화센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별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지역별로 구별하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스포츠센터를 신설·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공별로 구별하면 자연계와 인문계는 문화센터가, 예체능계는 스포츠센터가 신설·보완하여야 하는 장소로 나타났다. 이 결과 대학생들이 참여해보고 싶은 여가활동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학교주변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동반자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동성친구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장애요인은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비용부족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대학생들을 위하여 저렴한 비용과 시간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생활권 주변에 공공여가시설을 설치한다면 많은 대학생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성별 간 비교에서 참여정도(기간), 참여정도(빈도), 시간(평일), 시간(주말), 비용(주말)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비용(평일)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지역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비교에서는 참여정도(기간), 참여정도(빈도), 시간(평일), 비용(평일), 비용(주말)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시간(주말)은 자연계가 인문계, 예·체능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성별 간 비교에서 신체적 필요성, 정서적 필요성, 심리적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체육활동의 의미와 체육활동의 필요성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육활

동 참여인식에 대한 지역별 비교에서 체육활동 의미, 신체적 필요성, 심리적 필요성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체육활동의 필요성, 정서적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은 대도시가 중·소도시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육활동 참여인식에 대한 전공별 비교에서는 체육활동의 필요성, 신체적 필요성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체육활동 의미, 정서적 필요성, 심리적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이 예·체능계가 자연계, 인문계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홉째, 체육활동의 필요 이유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건강관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이 건강을 목적으로 여가활동과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체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열 번째, 체육활동의 동반자로는 성별, 지역별, 전공별 모두 동성친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열한 번째, 대학생들의 체육활동 장소를 성별로 구별하면 남자는 체육공원, 여자는 집 주변 공터로 나타났고, 이는 남자는 여러 시설이나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체육공원에서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여자는 집 주변의 공터에서 가벼운 운동을 실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역별로 구별하면 대도시는 스포츠센터, 중·소도시는 집 주변 공터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는 중·소도시에 비하여 체육시설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도시 역시 많은 체육시설이 신설·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열두 번째,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성별 간 비교에서 체육활동의 요인, 평일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체육활동비(주말)는 비슷하게 나타났고,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지역별 비교에서 체육활동의 평균회수, 체육활동의 요인, 평일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체육활동비(평일), 체육활동비(주말)는 비슷하게 나타났고,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은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육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전공별 비교에서 체육활동의 평균회수, 체육활동의 요인, 체육활동비(평일), 체육활동비(주말)는 비슷하게 나타났고, 즐기는 종목의 참여기간, 평일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 주말에 즐기는 평균 운동시간은 예·체능계가 자연계와 인문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열세 번째, 체육활동 참여 종목에서는 성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배우고 싶은 종목에 남자는 테니스, 여자는 수영이 가장 높았고, 현재 가장 즐기는 체육 종목에는 남자는 농구, 여자는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보고 싶은 체육 종목에 남자는 골프, 여자는 수영으로 높게 나타났고, 희망하는 평생 생활체육 종목으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배우고 싶은 종목에 대도시는 수영, 중·소도시는 테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 가장 즐기는 체육 종목에는 대도시는 수영, 중·소도시는 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 해보고 싶은 체육종목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희망하는 평생 생활체육 종목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실시한 분석결과 배우고 싶은 종목에 자연계와 인문계는 테니스, 예·체능계는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즐기는 체육종목에는 자연계가 헬스로, 인문계는 축구로, 예·체능계는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보고 싶은 체육종목은 자연계와 인문계는 수영, 예·체능계는 골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희망하는 평생 생활체육 종목에서는 자연계와 인문계, 예·체능계 모두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대학생들은 체육의 종목에서 수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유산소성 운동으로 호흡 계와 순환계 운동을 발달시켜 성인병의 근원인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경제성장에 의해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

었고, 생활의식의 변화, 건강 및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일탈적 행동이나 현대 사회의 병리현상이 심화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여가와 체육 활동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 시절 입시위주의 학교생활과 경쟁으로 인하여 여가시간을 제한받고 성장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시간으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자발적이며 활발한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인으로서 출발하는 첫 단계로 여가활동의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특히, 2005년도부터 앞으로 시행될 주 5일 근무제가 일부 시행되고 있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참여를 높이고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대학 본부뿐 아니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학생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보완 및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교의 교양체육 교과과정을 비교연구 하여 대학 교양체육 교과과정 및 여가활동의 방향제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앞으로 각 국 대학교의 교양체육 교과과정의 비교연구 등 후속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신태(2000). 중학생들의 여가의식 및 여가활동 실태의 지역 차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경렬(2002). 한국 사회체육 발전방향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경태(1996).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태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오중, 최장호(1994). 여가레크리에이션, 서울, 대경.
- 김홍백(2001). 레저스포츠총론, 서울, 형설.
- 김호순, 한태용(2002). 체육의 참여활동 조사에 의한 지역별 활성화방안연구, 대원과학대학 논문집 제7집.
- 나성훈(2001). 중학생들의 여가의식과 활동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용구(2002). 여가학, 서울, 대경.
- 문화체육부(1995). 국민여가활동참여실태조사.
- 박미란(1993). TV스포츠 프로그램이 생활체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 열(2000). 사회체육프로그램론, 대경출판사.
- 서태양, 차석빈(1996). 여가론, 서울, 대왕사.
- 엄성호, 표영희(1995). 일반성인의 성(姓)차에 따른 여가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9호.
- 오근희(2001). 대학생의 사회화 요인에 따른 레저스포츠 참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주훈(2000). 대학생의 스포츠참가가 스포츠 가치관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동

- 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후원(1993). 여가활동참여유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번장(1991). 생활체육의 의의 및 필요성, 스포츠과학, 제36호
- 임번장(1994). 스포츠사회학 개론, 서울, 동화.
- 임번장, 정영린(1995). 여가활동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34권 3호.
- 임재구, 임태성(2000). 사회,문화 변동에 따른 여가스포츠 활동 경향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39권 3호.
- 정영린(1997). 생활체육참가와 여가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한범, 신명용, 박우(2002). 중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활동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22권
- Biddle, S. J. H.(1999). Applications of psychology to exercise and health-related physical activity. 3th International Congress Asian-South Pacific Association of Sport Psychology.
- Brim, Orville G., Jr. and Wheeler, S.(1966). Socialization After Childhood. NewYork: Wiley.
- Christensen, j. & Yoesting, D.(1973). Social and attudinal variants in high and low use of out door recreatinal facil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 Dumazendire, J.(1967). Toward Society of Leisure, New York : Elsevier.
- Kaplan(1960). Leisure in America. N. Y: John Wiley& Sons, Inc.
- Kaplan(1975). Toward a Leisure Theory for Social Gerontology, in Aging and Leisure. A. Research Perspective into the Meaningful Use of Time , ed., Rober W. Kleemeier. New York, N. Y: Oxford University Press

- Kraus(1990). Recreation and Leisure in Modern Society New York:Appleton–
Centure Crofts.
- Lutzin,Zahna(1993). Managing Municipal Leisure Services. Washington, D. C:
The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Mckech.
- Murphy(1981). Concept of Leisur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
- Mckechnic, G.E(1974).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leisure : Past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 Neulinger, J.(1981). Leisure: An introduction. Boston: Allyn & Bacon.
- Olson, J., Zanna, M.(1993),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 Orthner, D.K.(1976). Patterns of Leisure and Martial inter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 Parker(1981).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London : Mac Gibbon and Kee,
- Robinson, J. P(1969). Social change as measured by time budgets. Journal
Leisure Research

ABSTRACT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Recognition and the Tendency Analysis
Undergraduates' Leisure and Athletic Activities

Won Yu-mi

Depr.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the participation recognition and the tendency of undergraduates' sound leisure and athletic activities, thus it surveyed and analyzed 940 copies of effective materials by using a simply random-sampling method, targeting 1,000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s, centering on the areas of a large city (Seoul) and a small-medium city (Jecheon), by gender, by region and by major, in terms of the participation recognition, the participation tendency, the participation level for leisure activities, and the participation recognition, the participation tendency, the participation level, and the participation item for athletic activities.

As for data processing, it conducted the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One-way ANOVA, using frequency analysis with the program of SPSS/PC+10.0, and as for the post-comparison method, it analyzed with

the multiple comparison of Duncan.

1. As the factors, which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mparison between genders about the participation recognition of leisure activities, are the time limitation and the consumption-expense restriction during the leisure activities, it was shown to be higher in women than men. By region, a large city was shown to be higher than a small-medium city as for the leisure meaning, the satisfaction recognition after participating in the leisure activities, the leisure importance depending on the 5-day work-week system, and the leisure importance. By major, the physical education and dance departments were shown to be higher than the natural-science course and the humanities course, as for the leisure meaning, the time limitation, and the consumption-expense restriction.

2. As for a reason for the necessity of leisure activities, the relief of stress was shown to be high all by gender, by region, and by major. As a result of this, what many undergraduates enjoy the leisure activities aiming to relieve stress, can be analyzed to participate in the leisure activities aiming to relieve physical, social and mental parts.

3. The leisure activities being participated on ordinary days, are highest in a meeting with friends all by gender, by region, and by major, and the leisure activities being preferred to do on ordinary days, were shown to be the leisure sports activity all by gender, by region, and by major.

4. As for the facilities to be hoped to be supplemented and newly installed among the leisure facilities around university, given dividing by gender, the male students hope for a sports center and the female students

hope for a culture center, thus it can be said to be different in the pursuit by gender. By region, it was shown that a sports center needs to be newly installed and supplemented both in the large city and in the small-medium city. By major, it was shown to be a place where needs to be newly installed and supplemented for a culture center in the natural-science course and the humanities course and for a sports center in the physical education and dance departments. As a result of that, as for a point that was connected to the leisure activities being preferred to do, it was shown to be able to induce the soundly leisure activities, by offering the programs of the athletic facilities and the cultural facilities around a school.

5. As for undergraduates' partner for leisure activities, it was shown to do leisure activities with a homosexual friend all by gender, by region, and by major.

6. As for the handicapped factors of undergraduates' leisure activities, the lack of costs was shown to be high all by gender, by region, and by major.

7. As for the factors tha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mparison between genders about the participation level of leisure activities, the expenses (ordinary days) were shown to be higher in women than men. By reg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rticipation level of leisure activities. In the comparison by major, the expenses (weekend) were shown to be higher in natural-science course than in the humanities course and in the physical education and dance

departments.

8. As for the factors tha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mparison between genders about the participation level of athletic activities, male students seem to recognize higher than female students as for a meaning and the necessity of athletic activities. As for the factors tha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mparison by region, a large city seems to recognize higher than a small-medium city as for the necessity of athletic activities and the mental necessity. As for the factors tha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mparison by major, it can be seen that the physical education and dance departments are being highly recognized than the natural-science course and the humanities course as for a meaning of athletic activities and the emotional, psychological and social necessity.

9. In terms of a reason for the necessity of athletic activities, the health care was shown to be highest all by gender, by region, and by major. What undergraduates are taking part in the leisure activities and the athletic activities aiming at health, is though to be an encouraging result aiming at the sound development of sports.

10. As for undergraduates' partner for athletic activities, it was shown to do leisure activities with a homosexual friend all by gender, by region, and by major.

11. Given classifying the athletic-activity places of undergraduates, it was shown to be an athletic park for male students and to be an empty lot around the house for female students, and as a result of this, it is thought

that male students are carrying out sports in an athletic park because of requiring various facilities and equipments and that female students carry out a light exercise in an empty lot around the house. Given dividing by region, it was shown to be a sports center for a large city and to be an empty lot around the house for a small-medium city, and as a result of this, it can be analyzed to be a result shown because a lot of athletic facilities were supplied to a large city, compared to a small-medium city. Aiming to supplement this, the athletic facilities seem to need to be newly installed and supplemented in a small-medium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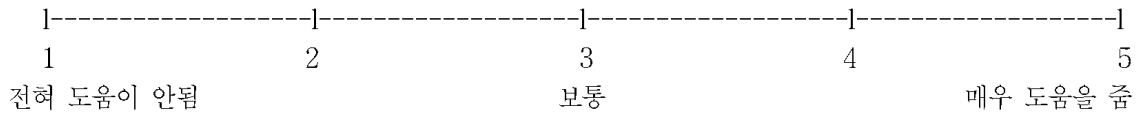
12. As for the factors tha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mparison between genders about the participation level of athletic activities, male students were shown to be higher than female students as for a period of participating in a event to be enjoyed, and the averagely exercise hour to be enjoyed on weekend. As for the factors tha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mparison by region, a large city was shown to be higher than a small-medium city, as for a period of participating in a event to be enjoyed. As for the factors tha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mparison by major, the physical education and dance departments were shown to be higher than the natural-science course and the humanities course, as for a period of participating in a event to be enjoyed, the averagely exercise hour to be enjoyed on ordinary days, and the averagely exercise hour to be enjoyed on weekend.

13. As for the participating event of athletic activities, swimming and tennis were shown to be a participating event of athletic activities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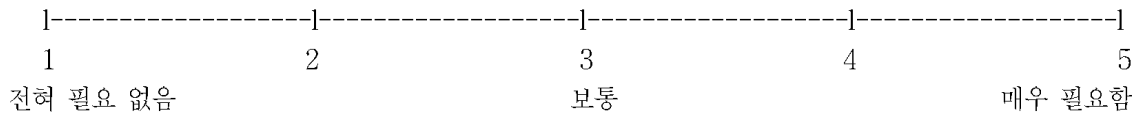
gender, by region, and by major. As a result of this, undergraduates are having much interest in swimming out of athletic events. As a result of that, it is thought to select as a method aiming to prevent geriatric diseases, by developing the respiratory system and the circulatory system through the aerobic exercise.

It was shown to desperately require a program aiming to satisfy undergraduates' needs, with soundly leisure activities and athletic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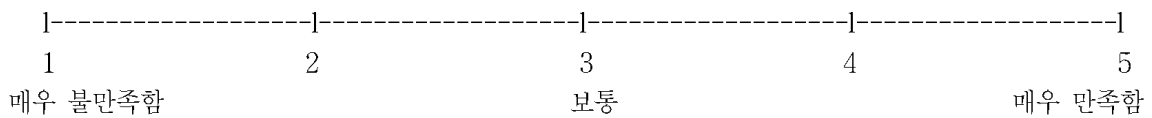
3. 여가활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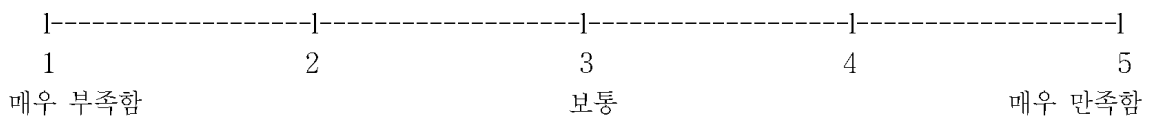
4. 건전한 여가활동의 의의 및 활동방법에 대하여 여가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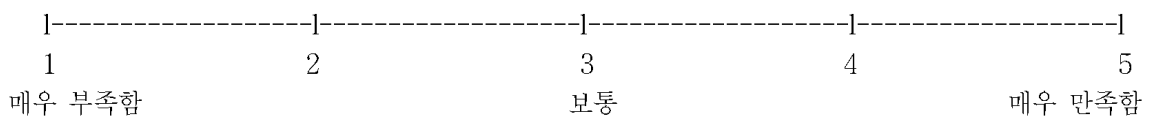
5. 여가활동 참여 후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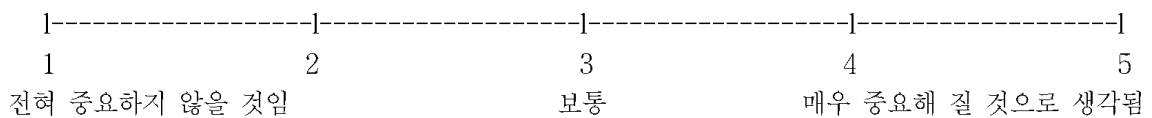
6. 현재 여가활동 시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7. 여가활동을 위하여 소비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8.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여가의 중요성 여부가 어떻게 변화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각 문항을 읽고 보기 중 본인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여가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스트레스 해소 2) 피로회복 3) 체육활동 4) 취미활동
4) 일상으로부터 탈출 5) 공부 능력 향상 6) 기타

10. **평일** 여가활동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 1) 친구와의 만남 2) 독서 3) 레저스포츠 활동 4) 인터넷 검색(게임·채팅)
5) 유흥장소 방문 6) 취미활동 7) 문화활동 8) 봉사활동

- 9) 여행 10) TV시청·라디오청취 11) 종교활동 12) 예능 배우기
13) 스포츠활동 배우기 14) 기타

11. 주말 여가활동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 1) 친구와의 만남 2) 독서 3) 레저스포츠 활동 4) 인터넷 검색(게임·채팅)
5) 유흥장소 방문 6) 취미활동 7) 문화활동 8) 봉사활동
9) 여행 10) TV시청·라디오청취 11) 종교 활동 12) 예능 배우기
13) 스포츠활동 배우기 14) 기타

12. 평일에 여건이 되면 가장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 1) 친구와의 만남 2) 독서 3) 레저스포츠 활동 4) 인터넷 검색(게임·채팅)
5) 유흥장소 방문 6) 취미활동 7) 문화활동 8) 봉사활동
9) 여행 10) TV시청·라디오청취 11) 종교 활동 12) 예능 배우기
13) 스포츠활동 배우기 14) 기타

13. 주말에 여건이 되면 가장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 1) 친구와의 만남 2) 독서 3) 레저스포츠 활동 4) 인터넷 검색(게임·채팅)
5) 유흥장소 방문 6) 취미활동 7) 문화활동 8) 봉사활동
9) 여행 10) TV시청·라디오청취 11) 종교 활동 12) 예능 배우기
13) 스포츠활동 배우기 14) 기타

14. 주변에 보완·신설되어야 하는 여가활동 시설은 무엇입니까?

- 1) 공원·유원지 2) 문화센터 3) 스포츠센터 4) 극장
5) 도서관 6) 각종 학원 7) 등산로 8) 구민회관
9) 기타

15. 여가활동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 1) 혼자 2) 지도자 3) 가족 4) 동성친구 5) 이성친구
6) 선·후배 7) 동아리활동 8) 동호인 9) 기타

16. 여가활동의 장애 요인은 무엇입니까?

- 1) 시설 부족 2) 같이 즐길 사람이 없어서 3) 활동방법 무지 4) 비용부족
5) 시간부족 6) 정신적 여유 부족 7) 체력 부족 8) 가족의 이해 부족
9) 기타

37. 체육활동은 평균적으로 주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주()회
38. 체육활동은 주로 무슨 요일에 하십니까? ()요일
39. 평일에 즐겨하는 종목의 하루 평균 운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40. 주말에 즐겨하는 종목의 하루 평균 운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41. 평일 평균적으로 체육 활동비로 소비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원
42. 주말 평균적으로 체육 활동비로 소비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원
43. 조건이 허락된다면 해보고 싶은 체육종목은 무엇입니까? ()종목
- 44 자신의 건강을 위해 평생 생활체육으로 즐기고 싶은 종목은 무엇입니까? ()종목

III. 인구통계학적 특성

* 각 문항을 읽고 () 안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1) 남학생() 2) 여학생()
2. 학교가 있는 행정 구역 단위를 구체적으로 () 안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특별시, 제천시) / () 지역
3. 학생이 전공하는 학과는 어느 대학(계열) 및 학과(전공)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대학 ()학과 또는 ()계열 ()전공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